

CONTENTS



차례

공주의 어제와 오늘 _ 2	공주영명고등학교
웅진칼럼 _ 3	교(敎)와 육(育), 그리고 학(學)과 습(習)
아름다운 공주가꾸기 _ 6	아름다운 간판③ / 신용희
공주를 사랑한 옛사람 옛노래⑫ _ 8	공주 감영에서 / 백원철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⑫ _ 12	공주의 땅이름 이야기 / 장길수
따뜻한 공주사람 이야기⑤ _ 16	남이 알까 무섭다 / 나태주
공주의 봉사단체를 찾아⑨ _ 19	사랑만들기
공주의 전통마을을 찾아서 _ 21	탄천면 남산리(2)
공주의 인물 _ 30	명재상 문극검
공주문화원 문화학교 소감문 _ 32	
내고장 소식 _ 40	시정소식
내고장 소식	미담
예술의 향기 _ 54	
문화원 소식 _ 58	



아름다운 공주가꾸기



봉사단체를 찾아서



곰나루수영장 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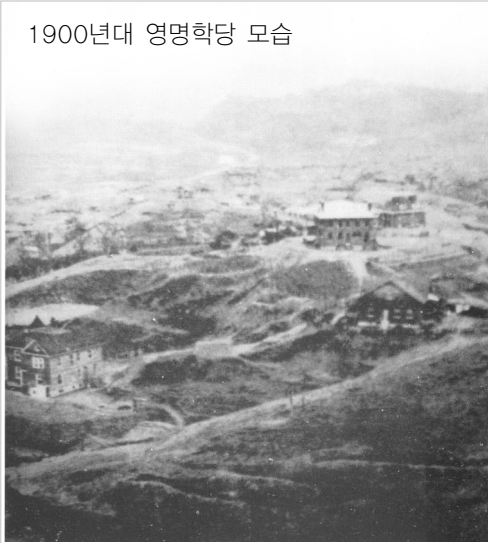
어린이 농촌체험 활동



효사상 선양 백일장

공주영명고등학교

1900년대 영명학당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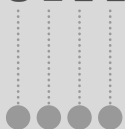
1905년의 영명학교 미국인 선교사 '사에리스' 부인이 여학당을, '윌리엄' 목사가 남학당을 설립하였다.(이 사진은 여학당임)

영명고교 개교 100주년 기념탑



영명고교 출신 주요인물 기념상 왼쪽부터 황인식 교장, 조병욱 박사, 유관순 열사





유 병 학 _

- _ 시인, 문학박사
- _ 공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 _ 시집 '사랑하며 행복하며' 외 다수
- _ 수필집 '가르치며 행복하며' 외 다수

교(敎)와 육(育), 그리고 학(學)과 습(習)

우리 공주시(公州市)는 예나 지금이나 교육도시로 이름나 있습니다. 초, 중, 고, 대학 등 학교가 많아서 교육 도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바르고 훌륭하게 가르쳐서 나라의 동량으로 키워 온 전통적인 명문학교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고향인 공주에서 성장하여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인 공주를 중심으로 교편생활을 하여왔습니다.

2007년 8월 24일 금요일, 마침내 저는 만 42년간의 교단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많은 제자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정년 기념식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제야 겨우 '교육'에 대하여 조금은 알 것 같은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 그동안의 보람되고 행복했던 교단의 자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42년간의 교단생활에서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다름 아닌 '학교 교육이야말로 정말로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42년간의 교단경험에서 우리나라의 자녀들의 '교육과 학습'에 관한 평소의 생각을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칼럼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본래 공부(工夫)란 말은 '힘든 일'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공부'는 어렵다는 선입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힘든 일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놀이'와 같은 재미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힘든 일로 생각하기보다는 즐겁고 재미있는 일로 바라볼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고자 '학교'가 필요하고 그 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교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교육(敎育)이란 말은 우리말로 '가르치다'입니다.

‘교’와 ‘학’은 학생 스스로의 힘보다는 교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고, ‘육’과 ‘습’은 학생이 주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가르치다’의 뜻은 ‘가르다’와 ‘깨우치다’의 복합된 언어입니다. ‘가르다’는 ‘분별하다, 구분하다, 골라내다’의 뜻이고, ‘깨우치다’의 뜻은 ‘실천하다, 실행하다’의 뜻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무엇이 나쁘고 위험한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유치(幼稚=어리고 어리석음)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어린이 시절인 유치원생 때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른이, 부모가, 선생님이 옳고 그름을, 바르고 틀린 것을 가려(區別)주어서 자녀들이 스스로 깨달아 실천하도록 키우는 것이 곧 ‘교’와 ‘육’인 것입니다.

학습(學習)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은 ‘배우게 하다’의 뜻이고, ‘습’은 복습, 예습, 자습처럼 ‘익히다’의 뜻입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지식의 내용을 나이 어린 학생들은 잘 모르니까, 어른인 선생님이, 부모가 ‘골라내서’+ ‘배우고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배우게 하되 스스로 몸에 익히도록, 이른바 자기주도 학습(自己主導學習)처럼 반복(反復)하게 하는 것이 ‘습’의 개념인 것입니다.

위에서 ‘교’와 ‘학’은 학생 스스로의 힘보다는 교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고, ‘육’과 ‘습’은 학생이 주도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앞의 것은 공부에 있어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게 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가르칠 내용, 즉 교과내용의 연구가 주를 이루게 되고, 뒤에 것은 ‘어떻게’ 익히게 하고 깨닫게 해서 실천하도록 하게 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공부 방법, 즉 학습지도에 대한 것을 주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수업(授業)이라고도 합니다. ‘업’이란 ‘일’이란 뜻입니다. 즉, 공부란 뜻입니다. 그 힘든 일(=공부과제)을 주는 것이 곧 ‘수’인 것입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에게 스스로 하기 힘든 일, 즉 학습내용(=과제)을 알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익히게 하는 것이 교사와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항상 ‘알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가르

쳐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훌륭한 스승인 것입니다. 부모는 제1의
스승이기 때문입니다.

신사임당이 ‘교와 육’을, 그리고 ‘학과 습’을
실천하여 율곡 선생을 인물로 만들었고, 에디슨
어머니도 에디슨을 그렇게 가르쳐서 발명왕으로 만들었
습니다. 한석봉 어머니도, 설리반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교와 육, 학과 습을 잘 하시는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자녀 교육, 그리고 학습지도를 어떻게 하였는지를 눈여겨볼 필요
가 있습니다. 그냥 학교에만 보내고, 학원에만 다니게 해서는 우리 자녀들
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부모님의 따뜻한 정성(교육)과 보살핌(학습)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교사와
학부모의 정성과 보살핌은 자녀 교육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42년간의 교단생활을 이렇듯 항상 ‘교와 육’ 그리고 ‘알기 쉽고(學)
+ 재미있게(習)’ 가르치려고 노력하였기에, 42년간의 교단생활이 매우 즐거
웠고 행복한 순간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아 그동안 수업
과 강의 시간을 함께 하여준 학생들은 저에게 우수교사(교육감)와 우수교수
(총장) 상을 여러 차례 선물로 안겨주었으며, 또 모범공무원이라는 최고의
상(대통령표창)까지도 보너스로 받게 되었었습니다.

장차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을 길러내야 하는 학교 교사와 학부
모님들은 어른의 몫인 ‘교(敎)’와 ‘학(學)’과 ‘수(授)’의 연마와 아동의 역
할인 ‘육(育)’과 ‘습(習)’과 ‘업(業)’의 활동에 대하여 더 많이 연구하고 꼭
실천하여 우리 자녀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워주기를 기대하면서 교단 경험
의 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작은 간판으로 공주를 아름답게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우리의 생활환경은 점점 윤택해 지고 있다. 그러나 도시 속에서 접하는 '시각환경'은 '요란하다'는데 큰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의 출발은 바람직하지 못한 '불법간판'에서 비롯된다. 간판의 난립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만 아니라 건물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원은 금강뉴스와 공동으로 '아름다운 공주 가꾸기' 캠페인을 개최, 연속적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간판'을 기획·연재하면서 연내 '아름다운 간판상' 시상도 할 예정이다. - 편집자



연문대가

백제 와당의 멋과 맛을 식단에 부쳐

공주 관광 일번지인 공산성과 무령왕릉으로 가는 길의 광장이 있다. 공주시민들의 토론의 장소요, 때로는 시민과 단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집회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곳을 '연문광장'이라 부르고 있다. 다 알다시피 공주는 천년백제의 왕도로서 백제를 상징하는 유물이나 유적 중에 백제와당을 빼놓을 수 없다. 백제와당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연꽃무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백제 무령왕릉으로 가는 길목에는 무령왕릉 연화문 벽돌의 모형을 형상화해서 아치형의 문 모양의 건축물이 서 있는데 이 문이 바로 '연문(蓮門)'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넓은 광장은 자연스럽게 '연문광장'이라 부르게 됐다. 이 연문광장 바로 옆에 백제의 맛을 이어가고자 간판을 '연문대가'라고 내걸은 식당의 주인은 연꽃처럼 화사한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다.



연문대가의 간판은 고전적인 서체를 이용하여 연문광장 주변의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자그마하면서도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간판이
멀리서도 눈에 잘 띄게 디자인되어 있다.



백제의 맛과 정신을 이어가는 자부심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주인 권영란(57)씨는 “처음에는 ‘연문 오채비빔밥’ 이라고 지었는데 사람들이 비빔밥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연문대가(蓮門大家)’ 라고 고쳤어요. 외지에서 소문을 듣고 오는 손님들에게 공주맛을 팔고 있다는 생각에 재료도 국내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주 관광안내를 톡톡히하고 있는 셈인데 음식도 오채정식(五菜, 다섯 가지 나물) 등 순 채식으로 메뉴를 선정하는 한편 김치나 장아찌 등도 직접 만들어 팔고 있어 요즘 웰빙식단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다. 연문대가는 간판에서부터 백제 선조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다.

신용희 | 명예기자

〈간판상식〉

○좋은 간판이란?

좋은 간판이란 무엇이고 좋은 간판이 왜 필요할까? 한번 상상해 보자. 아름다운 간판이 있는 거리와 다닥다닥 간판이 붙어있는 거리를.... 좋은 간판이 많은 거리는 그 곳을 걷는 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건물과 조화되는 간판이다

건물의 조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크지 않아야 한다. 우리 사람들의 ‘지리심리’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먼저 인식하고 나서 간판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간판이 너무 크면 건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므로 시각적 안정감을 잃게 되는 것이다. 건물과 조화되는 간판이란, 건물의 창과 벽에 기준선을 긋고 그 사이에 적당한 크기로 표현되는 간판이다.



공주 감영(監營)에서

백 원 철

공주대학교 교수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장



조선 후기에 조병현(趙秉鉉, 1791~1849)이란 인물이 있다. 호는 성재(成齋)이며 본관은 풍양(豐壤)이다. 32세에 문과에 급제한 뒤 홍문관 교리, 성균대사성, 좌승지, 이조참의, 공조참판을 거쳐 1833년(순조, 33년) 42세에 공충도(公忠道) 관찰사에 임명되어 약 1년 반 쯤 이곳 공주감영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주관련 시문(詩文)을 남긴 것은 곧 이때임을 알 수 있겠다.

그는 공주감영에서의 공직생활에 대한 소감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여기저기 박자치며 비파 연주하는데	檀板東西錦瑟頭
황하곡 삼절가락에 양주가를 부르네	黃河三疊唱涼州
어느때에 여만처럼 향기로운 모임 함께 할까	何時如滿同香社
당일에 소선공은 신선세계 꿈꾸었네	卽日蘇仙夢玉樓
뽕나무 밭 비올 조짐에 고을 일이 많으니	桑柘雲霓多邑事
술잔 술둥이로 풍류 즐길 기회 적을 수밖에	杯樽壺管少風流
밝은 달 아래 서편 정자의 낚시질 어찌 참으랴	那堪明月西亭釣
서글프게도 부질없는 일로 오랜 꿈을 등진다네	悵悵空緣負夙遊

(成齋集, 卷五, 「在錦營」)

지은이는 관찰사인 자신을 환대하는 주위의 풍악이 결코 성대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래도 지은이는 한결 더 고상한 경지를 그리워하고 있는 셈이다. 당나라 백거이(낙천)가 여만(如滿)을 포함한 아홉 노인(九老)들과 낙양에서 향기로운 모임을 즐겼으며, 소선공은 신선이 되어 하늘에 날아 오른 뒤, 3백년이 지나 백학(白鶴)이 되어 고향을 찾은 일이 있음을 상기하고 있음에서 곧 그러한 지은이의 마음을 읽어 볼 수 있다. 더구나 비올 때 쯤 해서는 농사일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술잔 기울



이며 풍류를 즐기겠는가. 따라서 밝은 달 뜰 때 서편 정자에서의 낚시는 일찌감치 접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지은이는 또 마침 국왕의 탄신일이 되자 공북루에 올라 예식을 거행하면서 흥겨운 정경을 읊기도 하였다.

이름난 누대에 기쁜 마음으로 깃발 세웠는데	名樓志喜擁牙旛
좋은 계절 가을에 한 차례 비 지나갔네	令節千秋雨一番
빛깔 고운 천위에 모여 앉은 기녀들의 노래소리	隊隊華粧紅妓唱
수조가 곡조는 임금 은혜 감사하는 내용이라오	水調歌是感君恩
(卷五, 「誕辰日登拱北樓」)	

또 쌍수성(공산성)에 올라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모래밭에 아침햇살 밝은데 수레 잠깐 멈추니	淨沙朝日少停輪
쌍수정 외로운 성은 마치 인연 있는 듯	雙樹孤城若有因
이 강물은 동쪽에서 흘러와 어느곳으로 가는가	此水東流何處去
서글프게도, 꽃피는 계절에 임과 이별하누나	黯然芳草別離人
(卷五, 「在雙樹城」)	

다음으로는 공북루 아래에서의 뱃놀이를 읊은 것이다.

푸른 물가 우뚝한 누대는 산성을 지켜섰는데	綠汀樓壓錦城關
붉은 촛불아래 뱃전을 두드리며 술도 멀리하네	絳燭扣舷酒等閑
노저올때 까마귀 울며 밤 산골짜에 날아들고	桂鳥啼移夜壑
대피리 부는 소리 가을 산에 울려 퍼지네	竹簫虬虯動秋山
구름위로 솟는 노래가락 은하수에 닿는데	凌雲清唱銀河畔
달빛아래 깊은 잠은 푸른 숲 속에 익어가네	掠月沈眠碧樹間
생각건대 고을도 텅빈 듯 사람도 보이지 않는데	遐想空洲人不見
부질없이 악기 소리 드높아 둥이 뜨게 하겠구나	漫教畫角曙光還
(卷五, 「次拱北樓舟遊韻」)	

벚놀이에 밤이 깊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읊은 둘째 수는 다음과 같다.

거룻배 들창문을 밤에도 닫지 않는다 하더니	解道篷窓夜不關
옛 사람은 거문고 타며 한가로움 누렸다네	故人琴瑟飽清閑
서리전엔 완연하게 있어 강물따라 읊기고	霜前宛在從寒水
달빛아래 서로 생각하며 늦 가을산 마주하네	月下相思禮晚山
이어 울리는 종소리 절이 가까움을 알리고	歷落禪鍾知近寺
느릿느릿한 고깃배 불 바위 사이에 움직이네	依遲漁火班岩間
기러기 소리 꿈길에 들리니 어디로 돌아가느냐	鴻聲引夢歸何處
개인 날 서늘한 숲 속 이슬길로 돌아오누나	晴載涼林玉露還

밤이 깊어가는 금강 주변의 정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되어 있다. 벚놀이도 그리 요란스럽지 않고 오히려 적막한 가운데 배를 띄우고 고요히 즐기는 운치가 한결 더 가슴에 와 닿는다고 하겠다.

또 지은이는 풍류를 알고 흥이 많았던 듯, 관아 기녀를 두고는 그들의 자태와 심정을 헤아려 다음과 같이 읊었다.

가지가지 늘어진 버드나무 강 남쪽에 서 있는데	數行垂柳錦南州
정을 준 남정네들 안타깝게도 머물지 않는다네	才子情人苦不留
노랫가락 멈추자 가을달은 오동나무 위로 밝고	唱罷梧桐秋夜月
맑은 강물 거울같이 공연히 근심만 일으키네	澄江如鏡慢生愁

(卷五, 「錦湖秋既望」 右屬香節)

기녀 향절(香節)을 두고 지은 시이다. 정인(情人)을 그리워하는 여인네의 애뜻한 심사를 섬세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시 역시 같은 정조(情調)를 읊은 것이다.

성제집

公州의 땅이름 이야기 (12)

장 길 수

— 봉황중학교 교장
— 공주향토문화연구회 회원
— 공주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위원



5. 유교의 터전과 땅이름

유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이래 그 이념이 중·근대를 통하여 교육의 바탕을 이루어왔다. 고려시대에는 중앙의 국자감과 동서학당, 지방의 향교가 교육을 이끌어 왔다. 조선시대에도 그 맥을 이어 서울에 성균관·오부학당, 지방에 향교 등의 관학이 교육의 중심이었다. 향교는 한 읍에 한 개 정도뿐이었기에 일반 서민들의 교육 혜택은 한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의 사립학교격인 서원과 서당이 도처에 세워지게 되었다.

공주에는 향교가 교육의 주체로 최근 세까지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해왔으며,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서원으로는 명탄서원(월송동)과 충현서원(반포면 공암리) 등의 건물이 남아있으며, 서당은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이 거의 없고, 서당골, 서당말이라는 땅이름으로 그 흔적을 비교적 많이 남기고 있다.

1) 향교와 땅이름

▶ 교동(校洞) 본래 공주군(公州郡) 남부면(南部面)의 지역으로 향교가 있으므로, 향곶골 또는 교촌(校村)이라 하였다.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교촌 일부를 갈라서 금정(錦町)이라 하여 공주면(읍)에 편입되었다가, 1947년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교동(校洞)으로 고쳐 부르고 있다. 생곶골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교동이라 불리는 땅이름이 전국 도처에 많이 있는데 이는 향교가 있었던 동네라는 뜻이다.

▶ 구향교골(舊鄕校-) 데치니고개(곰나루에서 송산소로 넘어오는 고개) 북서쪽 골짜기, 지아집뜸(지금의 국립공주박물관 건물 앞 광장 부근)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전에 공주 향교가 이곳에 있다가 인조 원년(1623)에 교동 현재의 장소로 옮겨갔다고 한다. 구향교동(舊鄕校洞)이라고도 한다.

- ▶향교골(鄕校-)¹ 반포면 원봉리 동남쪽에 있는 마을. 백제 때 향교가 있었다 한다.
- ▶향교골(鄕校-)² 신평면 원골 초입에 있는 마을. 고려 때 신평현의 향교가 있었다 한다. 향교동(鄕校洞).
- ▶향교골(鄕校-)³ 계룡면 화은리 여사울 동쪽에 있는 골짜기. 향교가 있었다 하여 그렇게 불린다. 향교터(鄕校-)

2) 서원과 땅이름

- ▶서원리(書院里) 반포면(反浦面) 공암리에 충현서원이 있다. 서원이 있으므로 1914년 이전에는 서원리라 불리었다.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서원리(書院里)를 중심으로 중산리(中山里), 덕곡(德谷), 연정리(蓮亭里), 길만리(吉滿里)를 병합하여 공암리라 하였다. 공암리란 땅이름은 공암굴이라 불리는 굴이 있음에 연유한다.
- ▶서원말(書院-) 월송동 사송정 등 너머에 명탄서원이 있으므로 서원말 또는 서원촌이라 불리었다. 지금은

사송정마을이라 불리고 있다.

- ▶서당골(書堂-)¹ 계룡면 하대리 석계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봇물의 목이 되며, 예전에 서당이 있었다고 한다. 서당동(書堂洞) 또는 보목, 보항(湫項)이라고도 한다.
- ▶서당골(書堂-)² 중학동 개울 아래쪽에 있는 마을. 전에 서당이 있었는데 서당동(書堂洞)이라고도 한다.
- ▶서당골(書堂-)³ 의당면 울정리 갸릿골(울정 앞 동쪽 들 건너에 있는 골짜기) 옆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서당이 있었다고 한다.
- ▶서당골(書堂-)⁴ 탄천면 이곡리 배실 북동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 옛날 서당이 있었음. 서당동(書堂洞)이라고도 함.
- ▶서당골(書堂-)⁵ 의당면 청룡리 창들 동북쪽에 있는 골짜기. 서당이 있었음.
- ▶서당골(書堂-)⁶ 금흥동 중산 남쪽 들 건너 골짜기에 있는 마을. 전에 서당이 있었음. 서당동(書堂洞)이라고도 함.
- ▶서당촌(書堂村) 탄천면 북룡리, 사당마루라고도 한다.



명탄서원(월송동, 2008.4.27)



도령서당(의당면 두만리, 2007.3.7)

※도령서당

도령서당은 공주시 의당면 두만리에 있다. 이 서당은 '지리산 청학동'의 참 모습을 재현하고 있는 현대적 서당이며, 이곳에서 8년째 운영 중이다.

인성교육을 토대로 충(忠), 효(孝), 예(禮)의 올바른 행동강령을 실천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타지에서 유학 온 초·중·고 학생들이 유숙하며 배우고 있다.



학교에서 돌아온 도령서당 아이들

3) 학교와 땅이름

- ▶중학동(中學洞) 본래 공주군(公州郡) 동부면(東部面)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고상아리(古常衙里) 일부, 계곡(桂谷), 서당동(書堂洞), 족지동(足止洞)을 병합하여 왜식으로 대화정(大和町)이라 하여 공주면(읍)에 편입되었다가, 1947년 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공주중학교의 이름을 따서 중학동으로 고쳤다.
- ▶중학교뜸(中學校-) 정안중학교가 있는 마을로 중학교가 있는 작은 마을이라 하여 중학교뜸, 또는 중학동(中學洞), 중학뜸이라 한다.

- ▶학교뜸 정안면 내촌리 정안초등학교가 있는 마을. 유구읍 연중리 연중초등학교(현재는 폐교 되었음)가 있는 마을. 두 마을 모두 학교가 있는 마을이라 학교뜸이라 한다.
- ▶학교산(學校山) 이인면 이인리 이인초등학교가 있는 산을 일컬었다.

4) 강당과 땅이름

- ▶강경골(講經-) 성당과 충남역사박물관 사이의 마을. 옛날에 경서(經書)를 강(講)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한다. 강경동(江景洞)이라고도 한다.
- ▶강당고개(講堂-) 우성면 오동리 서쪽에 있는 고개. 오동리에서 죽림리 강당으로 넘어감. 강당현(講堂峴)
- ▶강당(講堂)¹ 정안면 운궁리 활원에 있었던 강당. 강당이 있는 마을이라 하여 강당뜸이라 부른다. 이곳에서 선비들이 모여 글을 읽었으며 “以文會友”의 뜻을 따서 강당의 이름을 문회당이라 하였다. 공자(孔子), 주자(朱子)와 송우암(宋尤庵)의 영정을 모시고 조석으로 참배(瞻拜)하였는데, 현재는 그 터만 남아있다. 문회당의 터는 <사진3>에서 느티나무 바로 뒤쪽 밭이다. 느티나무 바로 앞쪽 논가에는 강당샘이라 불리는 샘이 있어 주민들의 식수로 쓰였다고 한다. 느티나무 서쪽 30m 지점의 길가에는 효자 최익항의 정려각이 있다. 강당과 느티나무, 우물, 정려각, 정자 등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보아 이 마을의 중심지로 보인다.



강당터(정안면 운궁리. 2008.6.15)



강당골(사곡면 호계. 2006.2.2)

- ▶강당(講堂)² 사곡면 호계리 능계 호계초등학교 서북쪽 뒤 골짜기, 복지산 아래에 있던 마을. 예전에 강당이 있었다고 하며, 10여호를 이룬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정분, 정지산 두 분을 모시는 충효사(忠孝祠)란 사당과 사당을 관리하는 집만 있다. 강당골이라고도 불린다.
- ▶강당(講堂)³ 우성면 죽당리 장개울 동쪽에 있는 마을. 강당동(講堂洞)이라고도 한다. 예전에 강당이 있었다고 한다.
- ▶강당뜸(講堂-) → 강당(講堂)¹
- ▶강당말(講堂-) 의당면 태산리 사당말

남쪽에 있는 마을. 이씨의 강당이 있었다고 한다. 강당촌(講堂村).

- ▶강성기미(講聲-) 정안면 장원리 구할원 서쪽들에 있는 마을. 운궁리에 있는 문화당에서 글 읽는 소리가 이곳에까지 들렸다 하여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한다. 강성평(講聲坪) 또는 강성그미라고도 한다.

5) 사당과 땅이름

- ▶화산영당(華山影堂) 화마루에 있는, 정조 때 학자 화산(華山) 정규한(鄭奎漢)의 영당. 지방 선비와 그 후손들이 합동으로 당을 짓고 춘추로 제사를 지냄.
- ▶사당마루 탄천면 북룡리 북룡 남쪽들 건너에 있는 마을. 무봉산 밑이 되는데, 백제 때 국사당(國師堂)이 있었음. 사당말, 국사당말, 국사당리, 서당촌, 사당마루.
- ▶사우말(祠宇-) 의당면 태산리에서 가장 큰 마을. 정종의 열째 아들 덕천군(德泉君)의 사우가 있어 사우말이라 불린다. 사우촌(祠宇村).



사우말(의당면 태산리. 2007.6.10)



나 태 주

— 시인
— 전) 장기초등학교 교장
— 충남 시인협회 회장

남이 알까 무섭다 — 이문하 교장

내가 잘 알고 가까이 지내는 교직 동료 가운데 이문하란 분이 있다. 그는 중등학교 교장을 지내고 화려한 교육 전문직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계에서는 공주지역, 더 나아가 충남지역에서는 모르는 이가 별로 없을 만큼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가는 직장마다 탁월한 아이디어를 발휘, 근무하고 있는 기관을 새롭게 바꾸어 놓아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능력이 이다.

내가 그를 알게 된 것은 20년 전쯤 충남교원연수원에서 근무할 때였다. 나는 그 기관의 장학사로 있었고 그는 연수생으로 들어와 교육을 받고 있었다. 한눈에 멀끔하고 잘 생긴 인상의 남자였다. 키도 현칠하니 크고 서글서글한 눈매며 부드러운 말씨가 또한 선량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그 뒤, 승승장구하여 교육계의 여러 가지 중요한 자리를 옮겨 다니며 한껏 기량을 발휘하여 충남지방의 교육행정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

그러한 그와 보다 가까워진 것은 내가 부모님 고회를 맞아 기념문집을 출간하여 기념식을 가질 때부터다. 그러니까 그것도 13년 전의 일인가 보다. 초청장에 쓰여진 날짜보다 1주일 빠른 일요일에 행사예정 장소였던 내 고향 마을인 한산 건지산회관이란 데를 사모님이랑 일부러 찾아와 허탕치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물론 날짜를 잘못 기억한 결과였다. 그러나 나로선 여간 미안스럽고 한편으로는 고맙기까지 한 일인지 몰랐다.

그 뒤, 어떤 자리에선가 그가 나에게 물었던 모양이다. ‘그래, 고향이 서천인 사람이 공주에 와서 뿌리내려 살고 있는데 그 느낌이나 생각이 어떤가? 대충 이런 질문이었다 한다. (이런 일들을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가

기억하고 있다가 글로 쓴 내용을 다시 옮기는 것이니 이렇게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겠다.) ‘남이 알까 무섭다’ 이걸 내가 대답한 말이었다 한다. ‘남이 알까 무섭다니? 그건 좋다는 말인가? 아니면 나쁘다는 말인가? 다시 그가 물었다 한다. ‘그건 좋다는 말이다. 좋아도 아주 많이 좋다는 말이다.’ 내가 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다.

세월이란 누구에게나 공평하여 나이란 것을 선물로 주신다. 아무리 외모가 젊어 보이고 멀끔해 보이는 이문하 교장이라 해도 나이를 비껴 갈 수는 없는 법. 그도 세월에 따라 회갑을 넘기고 정해진 세상의 규칙에 따라 오랫동안 머물던 교직에서 떠나는 날을 맞게 되었다. 그것은 지난 2월 28일(2008년). 아, 겉으로 한참 아랜 줄 알았더니 겨우 한 살 차이, 띠동갑이었다니! 그렇게 그와 나는 같은 연배를 산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문하 교장은 교직 정년을 앞두고 무언가 기념이 되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싶어 했다. 그만큼 화려한 교직 경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요란스럽게 정년퇴임식 같은 걸 해볼 만한 일이었다. 허나, 그의 생각은 처음부터 전혀 그렇지 않소이다. 였다. 나는 옆에서 기념문집을 찍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권유했다. 그가 이미 한 사람 전문적 문사로서 교육전문지나 지방신문에 맛깔 나는 칼럼을 자주 발표해온 것을 여러 차례 흥미 있게 읽어온 연유로서였다.

조금 주저하는 듯싶다가 결심한 듯 책을 한 권 찍어보겠다 했다. 서둘러 원고가 모아지고 거기다가 그 자신이 그린 그림이 또한 책의 삽화로 준비되었다. 나는 대전의 한 출판사 사장을 소개해주었다. 그는 군말 없이 그 출판사 사장을 받아들여 일사천리로 책을 만들었다. 책을 받아보니 체제가 반듯하고 장정이나 책 속의 삽화가 수준급이었다. 서울의 내로라는 그 어떤 출판사의 책보다 하나도 뒤지지 않았다. 그런데 책의 제목이 ‘남이 알까 무섭다’ 였다. 그건 오래 전에 나와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쓴 글에서 따온 책의 제목이었다.

정말로 나는 공주란 고장을 남이 알까 무섭게 생각할 만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젊어서 부터의 소원 가운데 하나가 ‘공주에서 집을 얻어 공주 사람으로 사는 것’ 이 아니었던가. 이런 내 의도를 이문하 교장이 충분히 읽어내고 글로 쓰고 또 그 제목을 가지고 책을 내기도 한 것이다. 그리고 보면 공주를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공

정말로 나는 공주란 고장을 남이 알까 무섭게 생각할 만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내 의도를 이문하 교장이 충분히 읽어내고 글로 쓰고 또 그 제목을 가지고 책을 내기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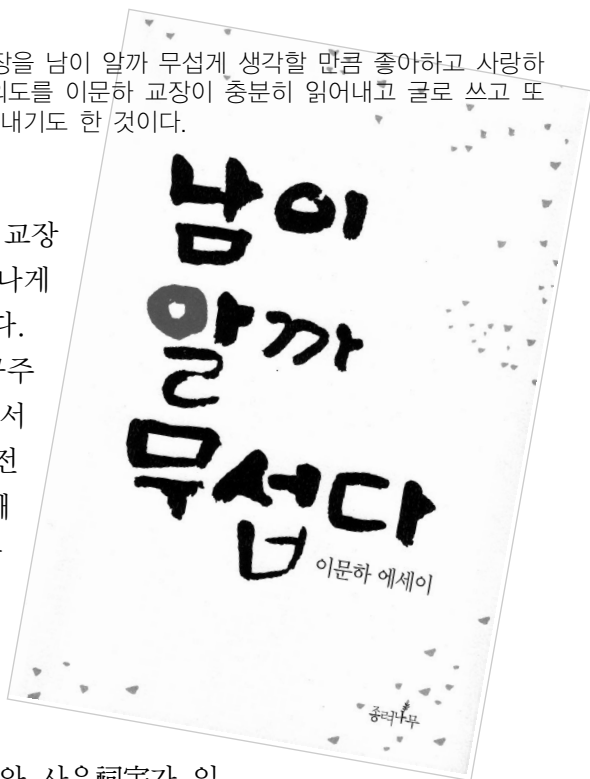
주에 오래 머물러 살다보니 이문하 교장 같이 참으로 좋은 공주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기도 하다.

이문하 교장이야말로 정말로 공주 사람이다. 공주 태생에다가 공주에서 자라 중등학교까지 나오고 잠시 대전에 있는 대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빼고는 별로 공주를 떠나지 않고 공주에서만 살아온 사람이다. 더구나 그는 공주에 세거지世居地를 둔 전주이씨 후손이다. 그러니까 조선조 정조임금의 아드님인 덕천

군이 그의 조상인데 덕천군의 산소와 사우祠宇가 있는 곳이 바로 공주이다. 공주에서 만나는 이 씨 성 가진 사람 가운데 ‘하, 은, 주’란 글자가 이름에 들어가는 인물이 있다면 그들이 모두 전주 이 씨요, 덕천군의 후손들이다. 이문하 교장의 이름 가운데 끝 글자인 ‘하’가 바로 그 돌림글자인 것이다.

우리네 인생이란 건 그야말로 한 바탕 봄날의 꿈과 같은 것이다.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변하게 되어 있고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 내가 만일 좋다고 말한다면 그건 변하는 세상, 흘러가는 세상 한 모서리를 보고 하는 말이었을 것이고 내가 섭섭하다, 서럽다 탄식했다면 그 또한 변해가는 과정의 어제와 오늘, 그 두 모습의 비교이거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게다. 내가 이토록 좋아하고 사랑하는 공주의 모습 또한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다. 흘러가고 변해가는 공주의 한 모습을 나는 지향 없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이리라. 그래도 나는 공주를 사랑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 무엇도 누가 알아줘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저 좋아 저 혼자 하는 일이다. 가능한 한 허락받은 목숨, 공주에서 더욱 오래 머물러 살며 정말로 공주 사람다운 이문하 교장 같은 이와도 더러는 마음을 주고받으며 좋은 이웃으로 자주 만나고 싶다.





그동안 봉사활동을 하는 여러 사회단체들을 소개하였씀니다만, 이번에는 좀 색다른 봉사단체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름은 “사랑 만들기”입니다.

특히 음악활동- 즉 악기연주를 통하여 이웃에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연주를 통해 이웃에 사랑을 전하는 사랑만들기



한국노 회장

“사랑만들기”는 2005년 1월에 김광석 회원이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인 ‘공주원로원’에서 혼자 공연을 시작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음악을 좋아하며, 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연주인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지금에 이르렀는데, 7·8인조의 밴드팀으로 구성, 그들의 골격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악기연주가 가능한 사람들은 언제나 봉사할 마음이 있다면 이곳에 들어와 함께 연주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주인들은 주로 프로 출신이 아닌 일반 직업인으로 사회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연습을 열심히 하여 오늘날에는 프로 솜씨 못지않은 솜씨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감독은 김성호(기획담당), 김원용(베이스 기타) 삼익피아노 대리점 대표, 한국노(보컬, 드럼) 공주대 구내식당 운영. 리더 김광섭(오르간, 색소폰) 공주뉴스 대표, 전홍남(드럼, 전자바이올린) 참나무 가든 대표, 김용환(리드기타) 제일철물 대표, 이회재(트럼펫) 치료감호소 음악교사, 최재운(사회) 한반도 이벤트기획 등의 여러 회원과 음악을 전공하는 회원들의 2세들도 틈틈이 공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카페에 “사랑만들기3”이란 이름으로 운영되는 카페에는 회원 및 후원회원이 70여명이나 되며, 이 분들의 찬조와 후원으로 매월 1~2차례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노인 요양, 장애인 시설 등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공연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도움을 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신청해 주



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 만들기팀의 전회장 김원용씨는 팀원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이 하나도 없는데도 “공연을 가자”하면 무거운 악기 챙겨들고 기꺼이 따라 나서는 회원들이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말 하였습니다. 그는 “연주를 그다지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 음악에 맞추어 흥겹게 춤을 추며 몸을 흔들기도 하며, 무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들을 볼 때 사람의 온기를 느끼곤 한다”고 공연의 즐거움을 이야기 했습니다.

“사랑만들기”의 큰 계획이 있는데, 모든 요양(장애인) 시설의 원생들을 한데모아 아름답고 수준 높은 음악회를 열려고 한답니다.

열심히 모여서 또한 열심히 연습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도 빌어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연주하는 즐거움도 크지만, 그 음악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음악에 대한 보람을 생각하면 뿌듯함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사랑만들기 후원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다음카페에 들어가 보시지 않을까요?

글|김춘원 명예기자



장애인체육대회(백제체육관)



장애인가족공연(국립박물관)



명주원 공연을 마치고



장애인여름성경학교 공연

탄천면 남산리(2)



- 마을의 위치와 유래
- 마을의 형성과 특징
- 남산의 성씨
- 송정의 세 서당 이야기
- 남산리 입석과 계백장군의 전설
- 남산골 금광
- 남산리의 대동고사
- 남산리의 두레
- 남산리의 우물
- 남산리의 민속놀이

금광과 서당의 마을

금광과 서당의 마을

송정의 세 서당 이야기

조선조 충청권을 대표하는 학자였던 윤증 선생의 터전인 노성서원의 인근 마을인 남산리에는 윤씨 문중에서 일찍 터를 잡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송정을 중심으로 이주해 와서 살던 윤씨 문중에서 대를 이어 서당을 운영해 왔었는데 1900년대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 30여 년 동안 서당이 문을 닫아 하나도 운영되지 못하였다 한다.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증언하는 노인이 없어 알 수 없는 일인데 1930년대 후반에 파평 윤씨 문중의 한 사람인 윤억중(尹億仲)이 이 마을로 이사를 하였고 이사한 다음 해부터 서당을 열고 한학(漢學)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윤억중은 일제 강점기의 어려운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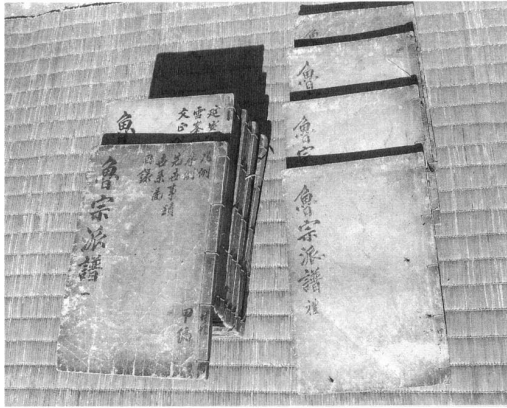
속에서 좀더 안온한 땅을 찾아 송정리로 이사했다. 특이한 것은 윤억중이 서당을 열고 한학을 가르치면서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더구나 윤억중의 장남으로 아직도 아버지가 살던 터를 지키며 살고 있는 윤석조(尹錫兆)의 증언에 따르면 자기 집안의 살림이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라서 가세(家勢)가 기우는 집안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는데 학동(學童)들에게 어떤 재화(財貨)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억중이 이 마을에 들어 서당을 열면서 1940년대에는 조 선생 또는 조대감으로 불린 조만손과 최 선생으로 불린 최영설의 조부 최철창 역시 외지에서 이 마을로 이사를 오면서 서당을 열었다.

산 넘어 남산골에서는 금광이 발견되



마지막 서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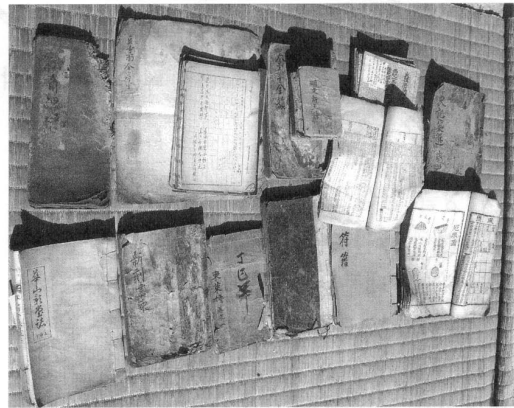
족보



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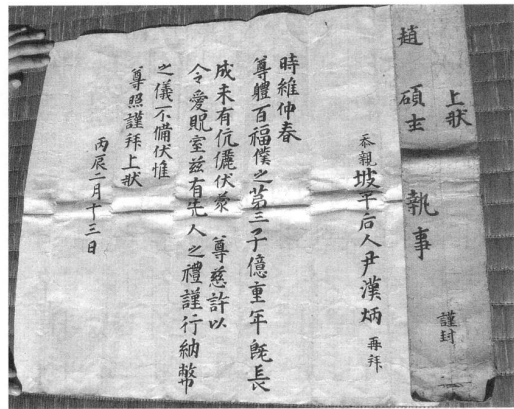
서당 서적(교과서)



기타도서



한글시조집(공주 지역의 | 시대적인 변천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자료)



윤억중 혼인에 오간 납폐문

서당터를 지키며 사는 윤석조 씨 부부



여 홍청망청하는데 불과 2km도 떨어지지 않은 송정에서는 서당이 한꺼번에 3개나 생겼다. 그리고 3개의 서당 모두 윤억중의 영향으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글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나라를 빼앗긴 세상에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쳐 그들의 인생길을 열어주는 데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마음과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는 가정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학문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던져 봉사하고 노력했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윤억중의 장남 윤석조에게는 참으로 의미 깊은 이야기가 있다.

집안이 어려운데 훈장인 아버지는 글을 가르치면서도 돈을 받지 않았으며 살림을 돌보지도 않았다. 결국 집안의 사정이 점점 어려워졌던 것이다.

아버지의 이러한 처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아들은 독하게 마음먹고 글을 배우지 않았다. 아버지가 선비로서 돈을 가벼이 여겨 살림이 궁하고 그로

인해서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이 안쓰러웠던 아들은, 아버지가 다른 집안의 자손들에게는 무료로 글을 가르치는데도 정작 본인은 글을 배우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힘써 농사를 지었다 한다. 글공부는 겨우 생활에 필요한 정도만 하고 일을 열심히 하여 마을의 중농 이상의 살림을 일구고 그 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결국 그도 나이가 들면서는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었으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풀기 위해서 아버지가 즐겨하던 시조를 뒤늦게 배우기 시작하여 지금은 공주 시우회에 나간다. 그리고 남달리 노력하여 이 곳 저 곳에서 열리는 시조 경창대회에서 상을 타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조 선생 서당의 후손, 즉 조만손의 아들 조범호 또한 이 마을에서 서당의 터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최 선생으로 불린 최철창의 후손들은 모두 이 마을을 떠났다.

남산리 입석과 계백장군의 전설

남산리 입석은 유적번호 공주 082-2번이다. 그런데 거석문화의 상징인 입석이 마을사람들에게는 부처로 보여 ‘부처모링이’라고 부른다. 특이한 점은 공주시 일원에서는 계백장군의 설화 2



남산리 입석 전경

편이 전래되고 있다는 점이다. 내용이 비슷한 설화 2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백제가 멸망하게 되는 황산벌의 전투를 위해서 5천 병정을 이끌고 출정하던 계백은 부처모링이에 이르러 부처당이를 솟돌로 칼을 갈아들고 황산벌로 향하였다. 그런데 계백장군이 황산성에서 패하여 죽음에 이르자 돌부처가 돌로 갈라졌다.

부처가 돌로 갈라진 후에는 누구나 이곳에 와서 소원을 빌면 소원을 이루어주었고, 특히 아들이 없는 집에서 소원을 빌면 아들을 얻게 되어 자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 찾았다.

다른 전설은 좀더 구체적이다.

계백이 황산벌로 출정하다가 이곳에서 쉬어 갔다는 것은 같은데 칼을 간 것이 부처모링이의 산과 들이 아니라 이 입석이라는 것이다. 계백 장군은 “나라가 어지러워 전쟁터에 나가는데 칼이 들지 않는다면 장수로서 도리가 아니다”라며 큰 바위에 칼을 갈았다. 그리고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 시험하느라고 장검으로 칼을 간 돌을 베었다.

장군의 한칼에 돌이 무처럼 잘리는 것을 본 백제의 병사들은 사기가 충천하여 황산벌에 가서 장렬히 싸울 수 있었지만 결국은 패하여 많은 장졸들이 죽었다.

황산 전투에서 살아남은 병사가 장군이 돌을 베던 장소인 부처모링이를 잊지 못하고 다시 찾아와 초막(草幕)을 짓고 살았는데 자신이 죽으면 가문이 끊어질 것을 두려워하여 이 입석 앞에 무릎을 꿇고 계백 장군에게 아들을 점지해 줄 것을 정성으로 빌었고 오래지 않아서 득남을 하였다.

이후 아들을 두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백일 정성을 들이면 틀림없이 아들을 얻게 되었다 한다. 그 중에는 9대 동안 독자로 이어 온 가문에서 이곳에 치성을 하여 아들 둘을 얻었는데 하나를 더 얻고 싶어서 작은 돌부처를 세우고 치성을 드렸더니 셋째 아들을 얻었다. 이후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입석과 작은 돌부처를 일러 첫째 부처, 둘째 부처, 셋째 부처 혹은 일바위, 이바위, 삼바위로 불렀다 한다.

전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웃 마을의 젊은이가 부처모링이를 지나가다가 부처를 손가락질하면서 비웃었다.

“저까짓 돌덩어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을 만든단 말여. 다 말쟁이 털의 장난이지.”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후 그 젊은이의 손가락이 아파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되어버렸다. 썩거나 끓는 것이 아닌데 일을 하지 못할 만큼 아파서 의원을 찾아갔지만 고칠 수 없었던 젊은이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 점쟁이가 젊은이에게 “아니, 왜 부처님한테 손가락질을 하며 욕은 한 것이여.”하고 본 듯이 말했다. 죄 없는 부처를 홍보면서 손가락질을 했기 때문에 손가락을 쓸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은 젊은이는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반성하고 점쟁이가 시키는 날에 부처모링이를 찾아가 고사를 올렸는데 그것이 정월 초이래였다 한다.

이후 젊은이의 손가락이 씻은 듯이 낫는 것을 본 사람들이 정월 초이레부터 열나흘까지는 개인적으로 고사를 올리고 정월 보름날에는 마을에서 대동고사를 지내는 장소가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는 입석이 셋이었는데 지금은 하나가 없어지고 둘뿐이라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개인 묘소를 정비하면서 입석의 주변을 정리하

였는데 묘의 잔디밭을 연장하듯이 정리하고 제사를 올리는 고사들을 놓아 예전의 자연스러움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효자문(孝子門)거리의 전설

송정과 건평 사이에는 효자문 거리로 불리는 곳이 있다. 이곳에는 효자의 정려(旌閭)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이 거리에는 박씨 효자(朴氏孝子)의 설화(說話)가 전한다.

가난 속에서 노부모를 봉양하는 박씨의 효심은 평소에도 남다른 데가 있었다 한다. 들이 넓은 노성리 방죽골에서 품팔이를 하여 연명하였는데 품팔이 일터에서 좋은 음식이 나오면 자기 몫을 먹지 않고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을 봉양하였다. 쌀밥을 안고 오면 밥이 식지 않았고 고깃국을 안고 오면서도 국물을 흘린 적이 없는 효자였다.

그러던 중 부모가 노환으로 동시에 몸져눕게 되었다 가난 속에서 양부모의 병구완에 지극정성(至極精誠)이었는데 하루는 아버지가 잉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였다. 여름이라면 어떻게라도 잉어를 구해볼 수 있었겠지만 계절이 한겨울이었다. 도무지 잉어를 구할 수 없는 박씨는 노성으로 품을 팔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방죽의 물을 바라

보면서 “이곳에는 잉어가 있을 텐데 잡을 수 없구나.” 하고 한탄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방죽의 어름이 깨지면서 잉어 한 마리가 어름 위로 튀어 올라와 그 잉어를 잡아다가 부모를 봉양하였다.

이러한 소문이 멀리 퍼져 박씨는 나랏님으로부터 효자로 상을 타고 그 증표로 정려를 세워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효자문거리’로 불렀다 하는데 지금은 정려가 전하지 않는다.

남산골 금광

한민족에게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기간은 그야말로 암흑기였다. 징용을 끌려가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은 차치하고 일제의 침탈로 인하여 경제가 파탄해지면서 자식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부모가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간

기간이 일제 강점기다. 그리고 전쟁의 어지러움과 가뭄의 흉년(凶年)이 겹쳐 하루하루 목숨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었던 것이 한국전쟁의 참혹함이었다.

그런데 남산골에서는 이 기간 동안 다른 고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유가 넘쳤으니 그것이 금광 때문이다. 남산리 금광의 정확한 시작의 기점은 알 수 없다.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이 일본인들이었고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극비로 붙인 상황에서 조사를 하고는 땅을 사들인 후 갑자기 금광 회사를 설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인 사장이 금광을 운영하였는데 사장의 얼굴을 본 사람조차 거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사장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살펴볼 때 1800년대 말 조선 정부의 사주를 받아



산 속에 방치된 금광의 시설물들—(좌) 분쇄공장, (우) 사무실 건물

시작한 일본인들의 토지 측량 과정에서 금광의 실체를 파악하고는 은밀히 금광 개발의 준비를 한 후 한일합방 이후 본격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금광이 시작되고 나서는 남산골에 갑작스러운 활기가 넘쳤다. 물론 회사의 간부들은 모두 일본인이었고 한국인들은 모두 막노동꾼에 불과했지만 농사일로 품팔이를 할 경우 장정이 3일 품을 팔아야 쌀 한 말을 하던 시대에 이틀이면 쌀 한 말을 사고도 남는 품팔이를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금광의 취업은 당시 젊은 장정들에게는 꿈일 수밖에 없었다.

채금의 양도 적지 않아서 경제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흔히 금광은 나오면 갑부가 되지만 나오지 않으면 망하는 사업으로 알려진 도박성이 강한 사업이었는데 이곳에서는 일본인 사장이 몇 번 바뀌지 않았고 인부들의 급여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증언이 쉽게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활기 있고 돈을 버는 금광이 지속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남산의 금광에서 가장 오래 사장 노릇을 한 일본인의 이름은 후지다 구미라고 전해지는데 일부 노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람이 1910년경 처음 금광을 시작한 인물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일확천금을 노리고 인근 야산에서 금맥을 찾으려는



폐광의 현재 모습들

노력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후기에는 한국인들이 금맥을 찾아 내 채굴을 시작하고 땅이 아니라 굴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는 정도에 이르렀다.

일제는 철저히 금을 착취해 간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산에서만 캐던 금광이 급기야는 남산에서 흘러내려 논산천으로 흘러가는 냇물에서 사금을 캐는데 사금을 캐는 대형선박(大船舶)을 만들어 운영하는 별도의 기업이 생겼는데 이 역시 모두 일본인들이 운영하였다.

일제 강점기 말기인 1940년대에는 금광굴이 100여개에 이를 만큼 성행하면서 남산골은 도시를 방불케 할 만큼 주민들이 늘어났다. 지금은 2~3 세대 밖에 살지 않는 작은 마을 흥성골에 30여 호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한 것도 금광의 영향이었다.

건평은 부여 건평이나 공주 건평을 막론하고 식당과 술집이 들어서 주막 거리를 형성하였고 당시에는 한 집에 한 대도 가지기 힘들었던 자전거를 한 집에 두 대를 가지고 있어서 논산사람들이 부러워했으며 술집에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 대여섯 명씩 있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다.

일제 강점기 이후 금광은 소규모의 사업으로 난립하여 굴 단위 사업주가 채굴을 하고 이를 갈아 금을 정선하는

작업은 별도로 이어지는 형태로 이어졌다.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후에도 이러한 형태로 유지되었다. 지금도 노다지 구덩이로 불리는 하나의 금광은 몇 돌만한 노다지가 나온 것으로 유명하고 1960년대 말까지는 노다지를 캐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렸으나 점점 생산되는 금의 양이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고석진이라는 인물이 순덕 광산을 인수하여 가재티골의 금광을 중심으로 1988년까지 금광을 운영하였으나 채산성이 떨어져 폐업하면서 금광산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88년 폐업 당시 광산 근로자가 모두 30명에 이르렀다 하니 그 규모가 작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광산의 굴은 무너져 출입을 할 수 있는 굴이 없으며 건물에는 잡초와 잡목만 무성한 지경이다.

〈다음호에 계속〉





충숙공 문극겸 공덕비

나라를 至極히 사랑했던 내 고장의 先賢

名宰相 문극겸 文 克 謙

(1122~1189)

문극겸 선생은 고려 명종 때의 재상으로 자는 덕병(德柄)이요 시호는 충숙(忠肅)이며 본관은 남평(南平)으로 고려 예종 17년에 공유(公裕)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은 집현전 대학사 동북면 병마부판사 지중서 문하성사 이부상서(集賢殿 太學士 東北面 兵馬副判事 知中書 門下省事 吏部尙書)로 시호는 경정공(敬靖公)이며, 인조(仁祖)사당에 배향되어 있고 조부는 익(翼)이며, 좌복야 산기상시 중서시랑 문하평장사 상주 국영동정(左僕耶 散騎常侍 中書侍郎 文下平章事 上柱 國令同正)으로 시호는 경절공(敬節公)이다. 백부 공인(公仁)의 주선으로 산정도감 판관(刪定都監判官)이 되어 과거에 몇 차례 응시하였으나 낙제되었고, 1147년 예종 1년 이후 과거에 응시, 급제하여 좌정언(左正言)이 되었다.

강직한 성격의 선생은 항상 옳은 말을 임금에게 직언(直言)함으로써 임금의 뜻에 거슬려 황주(黃州) 판관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황주에서 관속과 백성을 사랑하여 선정(善政)을 하니 이를 시기하는 자가 사소한 감정으로 임금에게 과직시키라는 상소를 하여 선생은 또 진주(晉州) 판관으로 좌천되었다.

의종 24년(1170년)에 내급사(內給事) 정

중부(鄭中夫)가 난을 일으켜 문관을 죽이고 또 병졸들을 시켜 궁중 문관들을 죽일 때 마침 선생이 병졸들에게 잡혔다. 선생은 병졸들에게 ‘나는 진정언 문극겸이다. 만일 임금이 내 말을 들었다면 오늘 같은 변이 있겠느냐?’ 라고 말을 하고 빨리 죽이라고 하여 이 상히 여긴 병졸들이 장교 앞에 끌고 가니 우리가 말씀은 많이 들었노라 하며 가두었다. 임금이 난을 피하여 남으로 가며 마상(馬上)에서 탄식하기를 ‘내가 문극겸의 말을 들었던들 어찌 오늘 같은 욕(辱)이 있으리오?’ 라고 탄식하면서 선생의 바른말과 선견(先見)에 탄복하였다.

명종(明宗)이 즉위(卽位)하여 제신(諸臣)들의 직책을 봉할 때, 선생을 비목에 봉하고 이의방(李義方)이 우승선 어사승(右承宣 御史承)에 천거하니 문신약(文臣若) 이공승(李公承)이 화(禍)를 면하였으며 무관들도 또한 화를 면하는데 많은 힘이 되었다고 한다. 임금이 옛일을 생각하여 용호대장군(龍虎大將軍), 다시 상장군(上將軍)에 명하였다. 선생은 딸이 있어 이의방의 아우 인(璘)을 사위로 삼아 계사난(癸巳亂) 화를 면할 수 있었다. 또한 명종 3년 근신(近臣)이 모여 수주(壽酒)를 올릴 때의 일이다. 밤은 깊었는데 갑자기 밖이 소란하여 살펴보니 정



고간원지

중부의 무리가 문관을 죽이는 것이었다. 선생은 여러 가지 계책(計策)을 세워 많은 사 람들을 구하였다.

명종 4년에 예부시랑(禮部侍郎)으로 전직 하시고 추밀원(樞密院) 지주사(知奏事)가 되었으며 다시 지원사(知院事)에 올랐다.

명종 8년에 선생이 임금에게 아뢰기를 “과거에는 연등(然燈)놀이를 이월 보름에 행하였으나 근래 전 왕의 제사로 정월에 행 하게 되어 음양이 부조 하오니 전과 같이 행 하기를 청합니다.” 라고 말하여 왕조의 변영 을 기원함으로써 왕에 대한 충성을 보였다.

명종 9년에 내관의 모략으로 인하여 잘못된 일을 거론하니 선생은 스스로 임금에게 아뢰어 불충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하였으 며 임금은 부득이 선생을 좌천시키시어 사 공복야(司空僕耶)로 삼으니 이를 지켜본 여 러 관원들이 애석해 하였으며 사공이 되어 녹을 받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선생의 청렴 결백함에 탄복하였다. 명종 10년에 태자소 경(太子小卿)이 되었으며 이어 참지정사(參知政事)가 되었고 다시 태위(太尉)가 되었 다. 명종 15년에는 판례부사(判禮部事)로 당 시 한문준이 반열에 들때요 선생이 다음이 었다. 최세보의 윗자리에 있게된 선생은 자 리를 양보하여 최세보를 병판부에 추대하였 으나 곧이 사양하여 선생이 병판부에 오르 니 세상 사람들이 선생의 인격에 감동하였 다. 그 후 선생은 상장군 최세보와 같이 국 사를 논하여 「의종실록」을 편찬하였다. 책

을 집필할 때 선생은 국사를 논하니 사실대 로 집필될지 걱정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최 세보와 같이 편찬에 착수 의종실록을 완성 하였다.

명종 17년에 중서 문하양성판병부사(中書門下兩省判兵部事)를 겸하고 이어 권판상서 이부사(權判尙書吏部事)가 되었다.

정중부가 난을 일으켜 세상이 어수선하니 공부상서(公部尙書) 조원정이 득세하여 공 금을 포탈하였다. 이에 선생은 그 죄를 아뢰 어 그의 아들을 좌천시키니 조원정이 앙심 (快心)을 품고 선생을 쫓아내려고 계락을 짜 고 칠십여 명을 보내 담을 넘어 궁에 들어와 추밀사(樞密使) 양익경(梁翼景)을 죽였다. 이것을 본 선생은 병졸을 소집하여 변복한 일당 한 명을 잡아 국문(鞫問)하니 조원정이 석인(石隣), 석충(石沖)과 비복을 보낸 것을 알아내어 그 일당 30여 명을 처형하였다.

선생의 충성과 굳은 절개, 청렴결백함을 신조로 음식과 의복을 검소하게 하였고, 과 거를 세 번이나 말아서 명사만을 선출하여 현명한 재상으로 불려졌다.

선생은 명종 19년에 68세를 일기로 유구 추계에서 타계하였으며 명종 사당에 배향되 었고 이조 태종은 충절충숙 훈업이 천추에 빛난다고 숭의전에 배향하였고, 묘하에 고 간원을 세우도록 명령하였다. 현재 유구읍 추계리에 고간원이 있어 선생의 뜻과 업적 을 기리고 있다.

꿈을 신고

풍물 야간반 이 은 무



공주같은 도시, 공주에서 지내시는 여러분, 공주의 거리를 걸을 때 마다 희망이 반짝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태어나고 자랐으며 현재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 확실시 되는 이곳이 지루하지 않을뿐더러 낯익은 거리에서 솟아나는 꿈의 소리를 듣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더욱이 요즈음은 늘어선 가로수들이 입을 벌려 기쁨과 웃음 짓는 소리가 거리마다 출렁입니다.

그러니까 만 1년 전 퇴근길, 집이 있는 방향과 각도를 조금 달리하여 문화원에서 올라오는 풍물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었지요. 오래전부터 가슴에 묻혀있는 꿈을 양증맞은 두 손가락이 쿵쿵 짝어 올리고 있어서였어요. 여학교 시절부터 하모니카를 배워 아카시아 나무 밑에서 신나게 불어보리라고 다짐했었는데 숨고르기에 불편을 느껴서 불행히도 꿈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 후로 동여맬 수 없는 시간은 뽀뽀기 하듯 몇 십 년이 흘렀습니다.

무대를 제 학원으로 옮겨봅니다. 돌이켜보면 글을 쓰는 일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었고 소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사는 ‘돌발’이란 놈이 곳곳에 돌출되어 있으니 걸려 넘어지기 일쑤지요. 하지만 “자존을 회복해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과 타인의 삶을 결코 망가뜨리지 않는 법이다.”라는 말을 상기하면서 차선책이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며 나름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면 관계로 사례를 들을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하나 둘씩 깨우쳐 갈 때, 가르치는 자로서 희열이란 말이나 글로는 표현하기 어렵다는 것이 보태지도 털어내지도 않은 제 심정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음양의 이치가 성립되듯이 반대의 측면에서 이야기 하자면, 오만상을 찡그려가며 책을 찢는 아이, 당장 학원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아이, 원비를 깎자며 협상

하고자 하는 어머니, 미납금을 남겨두고 그만두는 어머니... 쓰기가 부끄러워 그만 하렵니다만 쓰라린 기억들을 해체하여 가슴을 비워내느라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눈물을 흘려낸 적이 있었지요.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수행을 하지 못해 턱없이 부족한 이 사람은 세상의 아픈 말과 무모한 행동에 부딪히게 되면 통증을 승화시키기까지 힘이 듭니다. 언제쯤이나 거친 이들의 행동을 보듬는 손길이 되고, 그들의 음습한 곳에 제 음성이 흘러들어가 순치시킬 수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우리 풍물단원이 빙 둘러앉아 팽과리, 장구, 북, 징을 힘차게 칠 때면 각자의 양 어깨에서 삶이 튼튼히 부축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표정에는 비둘기 날개짓이 펼쳐졌으며, 울려퍼지는 가락 속에서는 아무도 몰래 어둠의 바닥에 쌓였던 한의 소리가 빛의 소리로 환치되어 어우러짐이 들렸습니다.

얼마 전, 우리 공주에 ‘비나리’ 공연이 있어서 함께 현장수업을 갔었지요. 사람의 몸에 있는 나쁜 감정, 감각들이 썰물처럼 모두 빠져나간 극치의 경지에 다다른 예술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번의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가져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 늘 학생들을 향하여 뿔어냈던 인용의 말을 그날은 나에게로 건네면서 말입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일이 주된 업무이고 소중한 일이지만 사물놀이 악기들을 고루 다루어 보고 싶은 만큼 지도교사가 항상 채찍해주시는 연습을 위하여 몸고생을 인내하렵니다. 훌륭한 무용가가 자연스런 춤을 추기 위하여 팔 다리를 정확한 동작으로 억제해야 되는 날들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풍물단원 동료 여러분, ‘하나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것을 포기해야 하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합시다.

오늘도 문화원 풍물반에 합류하기 위하여 청산으로 향하는 듯한 마음으로 서둘러 자리를 정리합니다. 공부하지 않으려고 떼쓰는 철부지들과의 시름에서 얻은 피로와 억센 부모님들과의 낯뜨거운 대면은 빈 병에 콕콕 담아 쓰레기 봉투에 선물하고 켄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서립니다. 함께 하십시오. 사람의 고리를 잇는 만남의 신비가 있고 정서적 조화가 울려퍼지는 곳,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풍물반’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닥종이 인형』 삼년째를 맞으며

닥종이반 윤 여 옥



이젠 아이들이 다 커서 내 손을 많이 거치지 않게 되고 보니 오히려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생겼지만 마음은 공허하니 할 일이 없는듯해 적극적인 생각도 들기 시작했다. 그 무렵 아파트 현관 입구 게시판에 붙여진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요강을 보았다. ‘한지 닥지공예’가 한 눈에 들어왔다. 이것도 인연이었을까. 그렇게 시작되던 첫해.

마음이 수십 번 바뀌었다. 닥지 공예품도 아니고 닥지 인형을 만들어 무엇을 할 것인가? 왜 선택을 했을까? 시작은 했으니 끝마무리는 해야 될 것 같았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선생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한지 한 장 한 장 찢어 붙이고 붙이면서 봄 여름을 보냈다.

남편은 옆에서 “그거 쭈그리고 앉아서... 똥배만 나오고 요가로 바꾸는 게 낫겠어.” 하면서 내 마음을 더 오락가락하게 했다. 하지만 얼렁뚱땅 완성된 닥지 인형. 세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기분이 묘했다. 그리고 얼떨결에 연 첫 번째 전시회. 못생겼어도 신기했는지 남편과 아이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줬다.

그 다음 해. 마음의 일렁임은 여전했다. 할까 말까 망설이면서도 선생님과 회원들 간의 정이랄까. 매주 목요일에 만나면 그냥 40대 아낙네들의 수다, 웃음(빨래터에서 어머니들의 이야기처럼)이런 것들이 연결고리가 되어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더 잘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 두 번째 전시회를 하면서 나는 다음 작품을 구상하게 되는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미술에 관한한 눈썹만치의 재주도 없는 내가 표현하고픈, 재현하고픈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발전이지 않은가.

긴 시간과 정성을 요구하지만 매주 화요일, 목요일 만나는 선생님과 회원들이 있기에 기다려지고 달려가고 반갑고.... 언제나 열정이 넘치시는 선생님. 바라만 봐도 웃음이 팍팍 터지는 우리 회원들. 이 한지의 매력은 끈기 있게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를 것이다.

끝으로 닥종이반을 개설해준 문화원과 여러 번 어려운 고비가 있었는데도 그 때마다 힘이 되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원에서 댄스스포츠를 배우며

댄스스포츠 야간반 노영숙



아이들이 어릴 때는 키우느라 바쁘고 어느 정도 자랐을 땐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운동을 하고 싶어도 시간을 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자라 엄마가 챙기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 할 일을 하고 직장도 잠시 쉬게 되면서 나를 위해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무척 고민이 되더군요.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을까 찾던 중 우연히 플랜카드를 보게 되었는데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댄스스포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고 운동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저렴한 수강료도 주부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었습니다.

재빨리 등록을 하고 처음 선생님을 만나 배울 때는 너무 힘이 들어 내가 과연 이걸 배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며 배우니 몸이 조금씩 풀리고 어렵기만 하던 동작들도 차츰 익숙해져 재미가 더해졌습니다. 가끔 게으른 생각이 들어오늘은 가지 말까? 하는 날도 있지만 그래도 문화원에 가서 선생님과 댄스스포츠를 하며 친해진 분들과 만나 신나는 음악에 빠르게 움직이고 나면 게으름 피우지 않고 운동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곤하긴 하지만 운동을 하고 나면 느껴지는 상쾌함과 많은 분들을 알아가는 재미에 이런 강좌가 있다는 것을 몰라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 권해주고 싶습니다.

수강생 중에 부부가 같이 오거나 부녀가 같이 오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신랑도 함께 운동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같은 취미생활을 하며 건강도 좋아지고 부부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으로 늙어가는 근사한 모습을 그려봅니다.

아직은 동작을 익히느라 바쁘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아름답게 춤을 출 수 있는 날이 오리라 생각하며 더불어 뚱뚱한 아줌마 몸매에서 날씬한 몸매로 바뀌면 더욱 좋겠다고 바라봅니다. 함께 댄스스포츠를 하시는 분들 모두 건강해지시고 끝날 때까지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여쁘다 그 아줌마

가곡반 서 동 남



나의 고향은 공주 우성 죽당이라는 산골 작은 마을이다.

주말이면 우리 가족은 친정 나들이를 간다. 바쁜 일손도 덜어드리고 쌀이며 각종 곡식이며 양념이며 고추장, 된장, 간장까지 부모님이 직접 담가주신다. 40살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양식을 마련해주신다.

얼마전 일이다. 봄의 향기를 만끽하며 언덕으로 올라가 달래며, 씹바귀며 쑥이며 봄이 우리에게 선사한 선물을 기쁨으로 받으며 마치 나물 캐는 처녀의 가슴으로 노래를 부르며 나물을 뜯었다. (푸른 잔디물 위로 봄바람은 불고 아지랑이 잔잔히 끼인 어떤날 나물캐는 처녀는 언덕위로 다니며 고운 나물 찾나니~~) 나는 마음껏 볼륨을 높여 노래를 불렀다. 그때 누군가 나의 눈을 가리며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아닌가!

“어여쁘다 그 아줌마!”

그는 다름아닌 나의 남편이었다. 나의 봄은 이렇게 낭만적인 영화를 한편 찍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아름다운 봄의 추억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나의 삶에 이 아름다운 추억을 갖게 해준 공주문화원의 가곡반 모임이 있다. 가곡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자연스럽게 가곡을 부르고 생활속에서 가곡을 즐기는 아주 유익한 모임이다. 나는 2006년 10월 신월초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께 이 가곡모임을 소개 받게 되어 가곡반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 열정적인 이광형 선생님께서 지도를 해주신다. 일주일 동안 연습한 가곡을 부르면 선생님께서 일일이 레슨해 주신다.

작년 여름에는 유명한 교수님께 레슨도 받았다. 월요일 오후 7시면 어김없이 문화원에서 발성연습 소리가 난다. 비록 삶이 바빠도 그 시간 만큼은 어떤 일에도 양보하지 않으려 애쓴다. 오늘도 문화원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가볍고 활기차다. 이렇게 수준있는 가곡반이 있어 나의 낭만도 커져만 간다.

요가를 배우면서

요가 야간반 김 현 영



지난해 1월, 문화원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종류도 다양하여 호감이 갔으나 내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했다. 겨울방학 기간에 공주로 이사는 했지만 근무지가 홍성이었고, 3월에 공주로 발령이 난다는 보장도 없었기 때문이다.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미련이 남았지만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다행히 3월 1일자로 공주로 발령이 났다. 하지만 신청기간이 지나 후반기 수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7월 1일. 드디어 기다리던 공주문화원 지역문화학교 후반기 요가 수강이 시작되었다. 저녁 7시 문화원 4층을 찾았을 때 모두 낯선 얼굴들이었고, 처음 접하는 요가라서 생소하고 많이 힘들었다. 스물이 갓 넘어보이는 박혜정 강사님의 열정은 대단했다. 잔잔한 음악 속에서 두 시간 내내 쉬는 시간도 없이 강도 높은 수업이 진행되었다. 뻣뻣하게 굳어버린 내 전신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고 점점 더워지더니 온 몸에 땀이 흘러내렸다. 참기 힘들었다. 전반기 때부터 계속 수강하신 분들의 유연한 몸동작이 부러웠다.

긴장과 기대 속에서 수강하기를 4개월. 어느새 나는 요가 예찬가가 되어있었다. 컴퓨터를 많이 하는 관계로 근육이 뭉쳐 항상 빠근하던 목과 등이 요가로 인하여 조금씩 풀어지고 뻣뻣하던 팔다리가 눈에 보이게 유연해지기 시작했다. 병원에 다니면서 물리치료를 수도 없이 받아왔는데 병원비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니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사실 처음부터 요가가 좋았던 것은 아니다. 활동적인 운동을 좋아하던 내가 2시간 동안 한 장소에서 그것도 아주 느린 동작으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칭만 하는 것이 졸리고 답답했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운동 후에 몸이 시원해짐을 깨닫게 되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뒤늦게나마 요가를 시작했다. 지금은 화요일과 목요일이 기다려진다. 운동을 끝내고 귀가 길에 오를 때는 빠근했던 몸이 많이 풀려 기분이 좋다. 항상 열정으로 가득한 박혜정 강사님의 수업에 가끔 감탄을 한다.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신 문화원 측에 감사들 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공주시민의 생활에 활력소를 넣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일본어 강좌를 수강하면서

일본어반 홍 정 희



우리 공주는 백제의 왕도였던 만큼 백제의 유적이 많고, 또 왕릉으로는 처음으로 피장자를 알 수 있는 백제 제25대 무령왕릉이 있어서인지 외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온다.

그 중 일본인 관광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익혀 두어야겠다는 다짐을 한지 오래이다.

그러던 중 이번 봄에는 관심을 두었던 일본어를, 강사님의 유창한 강의를 들으면서 실력을 다져보고자 공주문화원 일본어반에 등록을 하였다.

혼자 책을 들여다보며 나름대로 공부를 했어도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다가가시 노리꼬 선생님의 세심함으로 한결 수월해지고 나날이 일본어 공부가 재미있다.

기본적으로 개근을 목표로 두고 등록을 하였지만, 바쁜 일로 더러 빠지는 날이 있어도 강사님이 열성껏 지도해 주시니 실력이 쑥쑥 느는 것 같아 마음이 즐겁다.

이제 2010년이면 충남에선 대백제전이 열린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 도지사님 이하 많은 이들이 애쓰고 있는데, 나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 무언가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 백제전이 열리는 그 날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본어 공부에 매진한다.

お客さま! 公州でいらっしゅい!!! (여러분 공주로 오세요!)



병상에서 깨어나 새로 쓴 나태주 시인 삶의 기록 꽃을 던지다

아내는 그동안 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뜬문뜨문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들은 말해주지 말라 그랬지만 내가 상황을 너무 몰라 엉뚱한 행동을 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가당찮은 말을 자꾸만 해서 알려주는 거라 했다. 그동안 전혀 모르고 있던 일들을 소급해서 듣는 마음이 새롭고도 놀라웠다. 그게 그랬었구나, 싶은 일들이 많았다. 특히 의사의 절망적인 선언 부분, 장례위원회 결성에서 장지 문제 등이 놀랍고도 당황스러웠다.

- 본문 중에서

시인 나 태 주

- 1945년 충남 서천 출생
- 1971년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
- 초등학교에서 43년 교직생활 후 교장 정년퇴직
- 시집 「대숲 아래서」, 「막동리 소묘」, 「산촌엽서」 등
- 병상시집 「꽃이 되어 새가 되어」 출간



능묘와 풍수 文化

우리지역 향토문화 대가인 구중회 공주대 교수님(공주문화원 부원장 겸직)의 2년에 걸친 자료를 모아 <능묘와 풍수 文化>를 책자로 발간하였다.

고려 조선조의 능묘조성에 관한 자료들과 우리나라의 풍수문화가 어떠하였는지를 잘 조사해서 책으로 편찬되어 중국풍수문화와 비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중 회 교수

- 공주대학교 민속학 교수
- 「공주민속」(공주문화원, 1992)
- 「공주지방의 민속신앙」(공주문화원, 1995)
- 「계룡산 굿당 연구」(국학자료원, 2001)
- 「충청도 설위설경」(금강민학회, 2002)
- 「옥추경 연구」(동문선, 2006)



다양한 사업 추진.. 공주를 희망의 도시로

- 이준원 공주시장 민선시정 2년 결산

‘힘찬 도전! 위대한 공주’란 시정구호 아래 민선4기 공주시정 2년을 이끌어 온 이준원 공주시장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公州를 생동감 있는 희망의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 최연소 자치단체장에 걸맞게 젊은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공주만이 갖는 독특한 시책과 사업을 펼친 결과, 지역 곳곳에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발전을 향한 용트림이 힘차게 전개되고 있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경전파종(耕田播種)에 이어 물을 대고 거름을 주는 관수시비(灌水施肥)의 단계를 맞은 이준원 시장의 발전 프로젝트는 모든 분야에서 활기를 띠고 있다.

5都2村 주말도시 조성사업 - ‘평일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공주에서’

사곡면 부곡리 등 28개 시범지역에 숙박시설 및 체험장·주말농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100만 명의 회원을 목표로 하는 ‘사이버 공주시민’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농촌발전과 지역소득을 향상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관광도시 육성 - 관광인프라 구축

웅진동 66,291㎡의 부지위에 2010년까지 건립하는 대백제전 메인 전시공연장, 백제 큰 다리 교각 보호차원에서 시설한 금강 물막이사업, 관광객의 체험·창작 공간인 공예 공방촌과 편히 쉬어갈수 있는 구들장 체험 숙박촌 건립사업, 여가활용 차원의 MTB·ATV·골프장·수상스키·항공테마파크 등의 레저스포츠시설, 공주의 상징인 ‘Hi-Touch Gongju’ 브랜드개발, 공주 디자인 예술고를 가꾸기 사업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자연환경 조성 - 공주만의 독특한 자연 공간 형성

금학수원지 생태공원, 제민천 용수 공급사업, 유구천 및 정안천의 자연형 하천화사업, 우성면 상서리 비점오염확감시설 설치사업, 정안천변 순환산책로, 금강변 운치 있는 가로수 100리길, 금강둔치사면 100만본 금계국 꽃동산 조성사업

도시기반시설 및 산업경제 확충 사업 - 공주를 생산도시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 시내 8개 지역에 755개 주차면 확보, 동부간선도로·신관중앙로·북부간선도로 확포장사업, 강남지역 도시가스 공급, 불법 주·정차 무인카메라 설치 운영, 금흥동 지역의 아카데미타운 조성, 2012년까지 533만㎡ 규모의 13개 산업 및 농공단지 조성, 웅진 해피 올 등 73개 유망기업 유치, 실업해소 차원의 1,046개 일자리 생성



이준원 공주시장

맞춤형 복지실현 - 주민에 가까이 다가서는 복지행정

공주의료원 현대화 이전사업, 공주소방서 이전 추진, 주민지원서비스 확대, 100억원 목표의 공주시 한마음장학회 설립 및 장학사업 전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 장애인대상 복지지원 확대,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 질병정보 핫라인 모니터 망 가동,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등

농업 자생력 확보 - 농촌지역에 활력을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지원,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 농촌진흥자금지원, 농기계공급사업 전개,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활동,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 등

이와 함께 충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공주시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부와 긴밀한 협조 속에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공주~서천 간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 호남고속철도 남공주역의 차질 없는 건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신관·금홍·금학·월송 지역의 대단위 공동주택 건립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공주발전의 더 한층 앞당길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바쁜 시정 속에서도 중앙부처의 인사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규모가 큰 국비예산을 확보하고, 경인지역의 공단을 찾아 기업유치에 올인 하는 등 공주발전에 매진해 왔으며, 공주대학교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과 장기 파행운행을 겪던 공주시외버스터미널 이전사업의 해결방안 도출, 금강 물막이 사업의 완료로 공산성과 금강·금강둔치공원이 어우러지는 환상의 특화된 도시공간을 일궈내기도 했다.

본인보다는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공주시정을 이끌고 있는 이준원 공주시장은 각계각층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1천여 시 산하 공직자를 독려하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마음으로 오늘도 공주시정을 차질 없이 이끌고 있다.

충남 공주시와 경기도 구리시 상생발전 물꼬 열어

이준원 공주시장, 5도2촌사업과 사이버 시민제도 열강



이준원 공주시장이 박영순 구리시장에게 기념품을 건내고 있다.

이준원 공주시장이 경기도 구리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5도2촌 주말도시사업과 사이버 시민제도에 대해 열띤 강의를 펼쳐 화제다.

이 시장은 지난 6월 2일, 경기도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구리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공주시가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5도2촌 주말도시사업과 사이버 시민제를 특강, 열띤 박수를 받았다.

이 시장은 이번 특강에서 “5도2촌 주말도시사업은 5일 동안은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2일은 농촌에서 전원생활을 즐기자는 것”이라고 밝히며, “사이버 공주시민제는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 상에서 시민 가입을 유도해 도·농간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강으로 구리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구리시민에게도 “사이버 공간으로 초대의 계기를 마련하고, 공주-구리시간 이해증진과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양 도시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구축해 기관장 상호 교환 특강뿐만 아니라 행정교류, 관광사업 등을 발굴, 벤치마킹해 우호관계를 넓혀가기로 합의했다.

이의 일환으로 하반기에는 박영순 구리시장이 공주시를 방문, 공주시 직원을 대상으로 특강과 함께 공주시 주요 유적지를 시찰하게 된다.

한편, 이번 특강은 지난 2006년 구리시가 공주시에 교류·협력을 제안한 이후 두 도시간 자매결연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마련됐다.

공주시,

1억여원 들여 민원실 새 단장

공주시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 탈바꿈한 고객맞춤형 종합민원실이 쾌적한 시민공간의 장으로 변모, 시민들로부터 큰 각광을 받고 있다.

공주시는 지난해 11월 눈높이 민원대 교체와 함께 ONE-STOP통합민원창구를 개설한데 이어 지난 4월 서고이전과 민원실 확장공사까지 100% 모든 공정을 마쳤다. 이번 작업으로 민원실은 162㎡를 확장, 총 594㎡의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변모했다.

또, 세련된 디자인의 조명을 장착한 창구 미디어라인과 산뜻한 컬러의 데코타일, 무늬목과 패브릭으로 마무리한 벽면은 민원실을 쾌적한 분위기로 만들었으며 낮은 파티션으로 고객 및 직원들간의 의사소통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민봉사과장과 지적과장의 자리를 창구 바로 뒤에 배치하는 좌석 역순환 배치로 고객불편 해소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종합민원실은 폭주하는 민원업무에 비해 지난 1991년에 지어진 432㎡ 규모의 좁은 공간에 장비와 시설물도 노후화돼 그동안 고객들의 많은 불편이 있었다.

완전히 달라진 민원실을 접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넓어진 고객공간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세련된 디자인의 조명을 장착한 창구 미디어라인과 산뜻한 컬러의 데코타일, 무늬목과 패브릭으로 마무리한 벽면은 민원실을 쾌적한 분위기로 만들었으며 낮은 파티션으로 고객 및 직원들간의 의사소통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대백제전, 전 세계인 참여하는 축제로 급부상



제11차 세계역사도시연맹 총회 광경

오는 2010년에 공주시, 부여군에서 개최될 대백제전이 전세계이 참여하는 축제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이준원 공주시장은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터키 콘야시에서 개최된 제11차 세계역사도시연맹 총회에 참석, 오는 2010년 개최되는 대백제전에 세계역사도시연맹이 적극 후원하겠다는 확답 받는 등 각종 성과물이 담긴 선물꾸러미를 안고 6월 16일 귀국했다. 또, 공주시가 충남도와 부여군

과 함께 추진한 ‘2010 Baekje History Exp’ 개최와 관련 세계역사도시연맹의 후원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0년 개최되는 대백제전이 명실 공히 세계적인 역사도시의 참여와 축제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공주시, 기업유치 활동에 발벗고 나서

경기시화공단 등 기업체에 공주 여건설명, 큰 호응

충남 공주시 기업유치활동위원회(위원장 이동섭) 위원들이 기업유치를 위한 우수기업을 방문하는 등 기업유치 활동에 발벗고 나섰다.

6월 20일, 이동섭 위원장과 공주시 윤석형 시민국장 등 50여명은 경기도 시화공단 YS셈텍(주) 등 3개 기업을 방문, 현장 시찰과 함께 공주시 기업입지 여건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에서 이동섭 위원장은 “경기도 시화공단과 서울 금천구 디지털 산업단지내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 지역에 투자토록 홍보,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유치활동 위원들이 보다 많은 우량기업을 공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자”고 말했다.

공주에 기업유치를 희망하거나 원하는 업체는 공주시청#사이사이 기업유치과 기업유치담당(☎ 041-840-23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시, 무령왕릉 등 무료관람 조례개정 추진 사이버시민, 다사랑카드 소지자 등에게 혜택 부여

공주시가 문화재 관람 무료화를 골자로 하는 ‘문화재관람료 징수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주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공주시민과 사이버 공주시민증 소지자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다사랑 카드 소지자, 투표참여 확인증 소지자 등에게도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애향의식 고취, 관광객 유치확대, 저출산 문제해소, 투표율 제고 등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무령왕릉, 공산성, 석장리박물관 등 공주시가 운영 중인 문화재 관람에 있어 ▲공주시에 주소를 둔 자(신분증 소지자) ▲사이버 공주시민증 소지자(공주시 사이버시민 홈페이지에 등록된 자) ▲충남 다사랑 카드 소지자와 가구 구성원(신분증 소지자) ▲선거일 투표를 마치고 투표참여확인증 소지자 ▲단체 인솔교사 등에 대해 무료입장을 허용토록 했다.

한편, 공주시는 인터넷상에서 소정의 요건에 맞게 등록한 공주시 사이버시민들에게 문화재 무료관람은 물론 관광·문화·축제·행사 등의 각종 지역소식 제공, 농·특산물 할인, 음식·숙박 할인 등 푸짐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도·공간 동반성장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주시, ‘사이버 공주시민’ 홈페이지 개통

문화관광의 도시 공주시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농촌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이버 공주시민’ 홈페이지가 6월 2일 개통됐다.

사이버 공주시민은 국내·외 남녀노소 누구라도 인터넷상에 사이버 공주시민으로 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의 이전 없이도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정보교류는 물론 다양하고 푸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공주시는 오는 2010년까지 완료할 ‘사이버 공주시민’은 현 인구인 13만여 명의 7.6배에 달하는 100만여 명의 회원을 목표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입 절차는 인터넷 주소 창에 <http://cyber.gongju.go.kr>를 입력, 로그인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자유선진당 전인석 후보, 충남 도의원 당선



공주제1선거구 도의원에 당선된 자유선진당 전인석 후보가 심대평 대표를 비롯한 당원 및 지지자들과 승리의 만세를 부르고 있다.

6.4 재보궐 선거에서 자유선진당 전인석 후보가 공주 제1선거구 충청남도 도의원에 당선됐다. 전인석 당선인은 “공주시민의 현명한 선택에 무한한 경의를 표하며, 이번 승리는 공주시민 모두의 승리”라며 “‘이제는 공주도 변해야 한다’는 시민의 갈망이 담겨진 결과라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인석 당선인은 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공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활력 있는 공주, 품격 높은 공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6.4 재보궐 선거에서 충남지역 4개 선거구 모두 자유선진당이 승리를 거뒀다.



오제직, 제13대 직선제 첫 충남교육감에 ‘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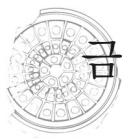


오제직 후보가 제13대 충청남도교육감에 당선됐다.

6월 25일 주민 직접투표로 치러진 제13대 충남도교육감 선거에서 오제직 당선인은 총 투표자 26만 5,565명 중 25만 5,392(96.16%)명의 찬성표를 획득, 오는 2010년 6월 말까지 2년간 충남교육을 이끌게 됐다.

한편, 오제직 당선인은 “임기 동안 함께하는 으뜸교육, 선진 교육복지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든든한 교육감이 될 것을 약속했다.

오제직 당선인은 당선소감을 통해 으뜸 충남교육 실현, 진정한 민선 교육자치 시대 구현, 농어촌 무료통학버스 단계적 도입·우리고장 친환경 농축수산물 이용 및 식품합동검수제 도입 등의 선진 교육복지 정책 실천 등을 다짐했다.



금강뉴스 창간 2주년 기념행사

“긴 흐름의 금강처럼 올곧은 지역신문 되겠다”



금강뉴스 창립 2주년 기념식과 우리가 지켜야 할 공주문화 세 번째 ‘공산성’ 사진전시회가 지난 6월 17일 충남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 날 행사에는 이동섭 공주시 의회의장, 윤석형 공주시시민국장을 비롯한 관내 기관장과 금강뉴스 자문위원인 윤여현·조재훈 공주대 명예교수, 이문하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명예기자들이 대거 참석해 성대하게 펼쳐졌다. 신용희 금강뉴스 대표는 “두 돌을 맞이한 금강뉴스가 창간 때의 초심을 잘 지켰는가 하는 점을 겸허하게 자성을 하는 한편 금강뉴스가 두 돌을 맞아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음은 지역 주민들의 성원과 질책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애정어린 고견 속에 초점을 잃지 않는 정론지가 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뉴스 창간 2주년을 기념하며 2년여간 글을 써 준 필진들의 글을 모아 ‘금강칼럼집’과 ‘강창렬의 세상보기’를 책으로 엮어 발간했다.



제2회 무령왕릉 헌공다례 행사 성황

차 시음회와 차 문화 간담회도 열려

공주시는 전통 차 홍보 및 백제 제25대 무령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6월 14일 송산리 고분군 무령왕릉에서 제2회 무령왕 헌공다례를 개최했다.

백제차전통예절원이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한국·일본 다도인, 관광객,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백제차전통예절원, 일본과 전국에서 모인 다도인이 무령왕께 차 공양을 드리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우리 전통 다도예절 시연과 함께 일본 전통 다도예절을 소개하는 이벤트를 열었다. 이와 함께,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이 우리의 전통 제례악을 연주, 아름다운 선율이 무령왕릉에 퍼져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250m짜리 초대형 달마도, 공주에 새 동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예견하는 '지옥열차화'를 그려 화제가 됐던 석주 이종철 화백이 그린 250m짜리 초대형 달마 그림이 7월 3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 온천리 '선화예술원'으로 돌아왔다.

30대 중반인 1980년대 세상사에 지쳐 입산했다가 달마도를 알게 된 석주 화백은 1987년 처음 붓을 잡았고, 그 뒤 수행과 보시의 수단으로 달마도를 그려 이웃에게 무료로 나눠줘 왔다. 그렇게 나눠준 달마도가 벌써 수만 장이 넘는다. 40여 차례 시연전과 개인전을 갖기도 한 석주 화백은 지옥열차화를 그렸던 2003년에는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하철 참사로 충격받은 시민을 위로하기 위해 2173명의 달마가 담긴 250m짜리 그림을 그려 대구시에 기증했다.

석주 화백은 대구시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고향인 충청도로 가지고 왔다. 7월 3일 동학사 입구 박정자 삼거리에서 선화예술원까지 300여명의 보살과 스님들이 108명의 부처님 형상을 108m짜리 그림으로 담았다.



공주시 곰나루 어린이 수영장 개장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웅진동에 위치한 곰나루 어린이수영장을 7월 1일 개장하였다. 공주시 관내 어린이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곰나루 어린이수영장은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 동안 운영된다. 다만, 5~7세의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이재권 공공시설관리소장은 “곰나루 어린이수영장은 다수의 어린이가 찾고 있는 만큼 단체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예약해 주고, 수영복과 수영모를 반드시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_ 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_ 이용대상 : 5세 ~ 13세

* 수영복과 수영모를 착용, * 5~7세 어린이는 반드시 보호자 동행



공주생명과학고 전국장사씨름대회 제패

최재호, 이영식 선수 개인전 우승, 단체전 준우승차지

6월25일 경남 마산에서 열린 ‘학산 김성률배 제5회 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교장 천장옥)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각각 기량을 발휘하여 개인전 우승과 단체전 준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전 우승의 영광은 최재호(장사급) 이영식(청장급)선수가 차지했다.



이날 대회는 결승전에 진출한 경북 의성고교와 승부 겨루기에서 16년만에 우승을 차지하려는 찰라 아쉽게도 의성고등학교에 패해 준우승에 머물렀다.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씨름단은 지난 4월16일 경기도 김포에서 개최한 제45회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 대회에서도 홍승원(역사급)선수가 우승 권오현(용사급)선수가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제6회 상철상 시상식

제5기 상철장학생 30명에 장학금 수여



제6회 상철상 수상자 명단

인애(仁愛)부문 - 김현옥(공주 귀산초등학교)

의용(義勇)부문 - 공주시 자전거 연합회(대표 정해상)

신의(信義)부문 - 박교신(공주시 상수도 시설관리소)

2008년도 제6회 상철상 시상식과 제5기 상철장학생 장학증서 및 장학금 수여식이 6월 21일 공주문화원에서 개최됐다.

이 날 상철문화복지재단은 제5기 상철장학생으로 선발된 총 3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각 50만원씩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제6회 상철상 수상자에는 △인애부문에 김현주 공주귀산초등학교 교사로 지난 27년간 지역의 여러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컴퓨터, 글짓기, 미술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특기적성 및 학력증진에 기여하였으며, 인성교육을 위한 독서교육의 일환으로 학교도서관 사업을 활성화 시켰고, 과학영재교육에 헌신한것이 인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의용부문에는 공주시 자전거연합회에게 수상의 영광이 돌아갔다.

2002년 설립된 공주시자전거연합회(회장 정해상/회원 100여명)는 전국 자전거단체와 협력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와 지역홍보를 위해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2007년에는 백제문화제를 홍보하기 위해 전국일주 자전거 투어를 실시했으며 백제문화권개발의 도서발간을 지원하는 등 지역홍보를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됐다.

△신의부문에는 공주시 상수도 시설관리소에 근무하는 박교신씨로 태안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하자 관내 직물공장에서 약 5톤 규모의 흡착용 직물을 수집하여 전달하는 등 봉사하는 공직자의 귀감이 되었고 모세관을 이용한 기름제거 흡착포를 발명, 2007년 12월 특허청에 발명·출원한 바 있다.



윤기순 할머니, ‘지극한 사랑은 이런 것’ 평생을 남편과 자식 위해 헌신, ‘장한 아내상’ 수상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평생을 남편과 자식위해 헌신한 윤기순(80) 할머니가 ‘제7회 장한 아내상’을 수상했다.

공주시 탄천면 운곡리에 거주하는 윤기순 할머니는 지난 6월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 대강당에서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강달신) 주관으로 열린 시상식에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 신체의 일부를 잃은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킨 아내에게 주는 ‘장한 아내상’ 상을 수상했다.

한편, ‘장한 아내상’은 한국전쟁 등 나라를 위해 싸우다 신체의 일부를 잃은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훌륭히 키운 아내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는 윤기순 할머니를 비롯한 21명을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141명이 이 상을 수상했다.



제7회 ‘장한 아내상’을 수상한 윤기순 할머니와 의성전투에서 부상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이엽 할아버지가 자랑스런 상장을 들고 활짝 웃어 보이고 있다.



심규철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교수 21세기 2000명의 탁월한 과학자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심규철 교수(사진)는 세계 3대 인명사전인 영국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re(IBC)에서 발간하는 ‘21세기 2000명의 탁월한 과학자’ (2000 Outstanding Scientists 2008/2009)에 등재되었으며, 마르퀴스 후즈후 인더 월드(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도 등재되었다.

심규철 교수는 2007년에도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인 마르퀴스 후즈후 사이언스 & 엔지니어링 (Marquis Who's Who in Science and Engineering) 10주년 기념판(2008-2009)에 등재된 바 있다. 심 교수는 생태학 분야 및 생물 교육 관련 논문을 국내외에 110여 편을 게재하였다.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



공주시 의당면 새마을(회장 김규영) 조속현 가족들은 6월3일 의당면 정평읍 씨 맥을 찾아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을 전개하였다.

집이 낡아 붕괴 위험이 있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당면 새마을가족들은 “앞으로도 낡은 집을 수리하는 봉사로 이웃들의 어려움을 돌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려움에 처한 배추농가를 위해 자원봉사 이인면사무소 직원들

이인면사무소(면장 김병권)는 지난 6월 5일, 이인면 복룡리 엄대용씨가 최근 재배한 여름배추 5,000여 포기가격이 폭락, 농사경비도 건질 수 없는 상황에서 배추를 갈아엎는 등 배추농사를 포기한다는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자원봉사에 나섰다.



우성장학회 선행, ‘훈훈한 감동’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어울마당’ 개최



6월 22일 ‘우성장학회 10주년 기념식 및 어울마당’이 오시영 우성면장, 조길행 시의원, 김이중 공주시 자율방법대장, 오대용 공주시 축구협회장, 유병주 농업경영인우성면회장을 비롯해 회원가족, 초·중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성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우성장학회는 상서초 노형중, 우성중 이호정, 금성여고 박인선, 생명과학고 서소연 학생 등 우성면내 모범학생 20명을 선발해 각각 20만원씩의 장학금과 봉사단체에 성금 50만원을 전달했으며, 문화상품권 1만원권 150매를 이날 참석한 학생들 모두에게 지급했다.

중학동새마을협의회, 사랑의 교복 전달

중학동 새마을협의회(회장 이흥태, 조순호)는 지난 5월 22일 5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고교 학생 11명에게 시가 150만원 상당의 교복을 전달, 격려했다.



이인면 초봉리에서 농촌체험활동 5도2촌 시범마을 초봉리에서



“뜨거운 햇볕아래 일하시는 농부의 어려움을 직접 알게 됐어요” 공주 중동초등학교가 지난 6월 11일, 공주시 5도2촌 주말도시 시범마을인 이인면 초봉리 마을에서 모내기, 수차 밟기 체험 등 색다른 체험활동을 펼쳤다.

이날 중동초등학교 학생 70여명은 직접 고구마를 심고, 논에 들어가 마을 어르신과 모내기 등을 하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리더스봉사단,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공주시 리더스봉사단원들이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을 위해 팔을 걷었다.

리더스봉사단원은 6월 14일 신평면 청흥리 이대중씨 농장을 찾아 감자 캐기, 잡초 베기 등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서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단원들은 또 이인면 이인리 홍옥연 할머니를 찾아 도배 및 장판 교체, 청소 등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공주교도소, 금강원에서 봉사활동 펼쳐

공주교도소(소장 강영길)는 지난 6월 5일과 19일 모범수용자 28명과 함께 공주시 우성면 죽당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금강원을 방문,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세상과 단절되었던 수용자들에게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부여 및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 됐다.



리더스봉사단, 장애인 일자리 창출 캠페인



5월 30일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승·하차장 일원에서 펼친 이날 캠페인은 취업욕구를 가진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리더스 봉사단원들은 시민 곁으로 다가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나누어 주며 아름다운 복지네트워크 캠페인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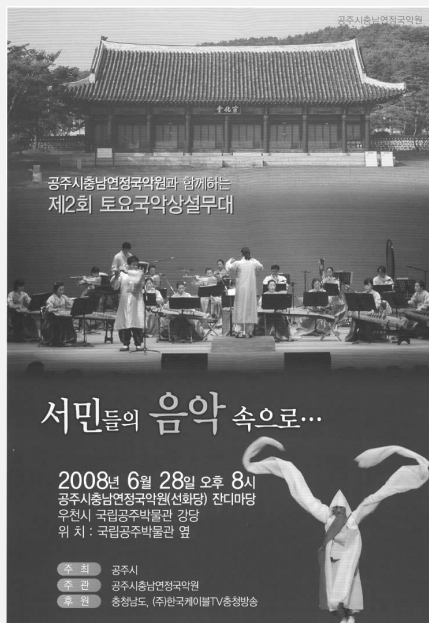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2회 토요일국악상설무대 마련
6월 28일 오후8시 선화당서, '서민들의 音樂속으로'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원장 노종락)이 '서민들의 音樂속으로...'라는 주제로 6월 28일 오후 8시에 고품스런 조선의 관아 건물에 있던 웅진동 선화당 잔디마당에서 두 번째 토요국악상설무대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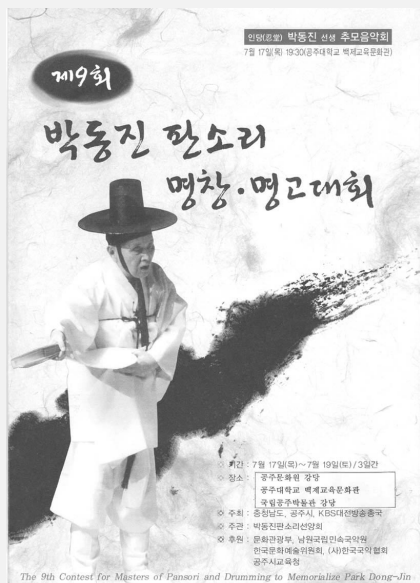
자연의 조화와 국악이 조화를 이룬 이번 공연은 국악의 다양한 장르를 시민들에게 선사, 국악의 멋과 흥을 만끽하는 무대가 됐다.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은 이번 공연을 통해 국악의 저변 확대는 물론 백제의 고도로서 교육·문화도시인 공주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일조했다.



제9회 박동진판소리 명창·명고대회 개막

7.17~19 공주대 컨벤션홀, 국립공주박물관 강당,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제9회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가 7월 17일 개막되어 3일 동안 개최된다.

충청남도와 공주시, KBS 대전방송총국이 주최하고 박동진판소리선양회가 주관한 이번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는 판소리와 고법으로 나눠 경연한다.

대회는 판소리 부문에서 명창부, 일반부는 공주대학교 컨벤션 홀에서, 판소리 부문 신인부, 학생부, 유아부는 국립공주박물관 강당에서, 교수부문은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7월 18일에 각각 동시에 예선이 개최된다.

경연종목은 판소리가 명창부·일반부·신인부·학생부(초등·중등·고등부), 유아부 등 7개 부문이며, 고법은 명고부·일반부·신인부·학생부 등 4개 부문이다.

참가자격은 만 18세 이상 남녀로, 학생부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어야 하며 유아부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로 한정한다.



백제문화제, 옛 ‘교류왕국’ 위상 되찾는다

제54회 백제문화제 추진상황 보고회

올 10월 개최되는 ‘제54회 백제문화제’의 대표 상설프로그램으로 ‘국제문화 교류촌’이 확정된 가운데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동남아의 물류 중심지였던 ‘해상왕국, 교류왕국 백제’의 옛 영화 부활에 나섰다.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는 공주·부여의 차별화된 ‘대표(명품) 프로그램’ 육성으로 특성화시키고, 유사 프로그램인 ‘교류왕국 퍼레이드’와 시·군 역사행렬’과 ‘백제향과 백제역사문화속으로’를 ‘백제향’으로 통합키로 했다.

그밖에 주요 프로그램별 전문 PD확보로 연출을 극대화시키고, 시설물 및 장식의 시각적 효과 제고와 전통적인 고전미 강화, 체류형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황산벌 전투’, ‘퍼레이드 교류왕국 대백제’, ‘백제 등불제’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공주시·부여군 일원에서 ‘교류왕국, 700년 대백제’를 주제로 열리는 ‘제54회 백제문화제’에서 공주시는 백제 웅진성 퍼레이드, 무령왕이야기, 백제 등불제(유등제)를, 부여군은 백제역사 퍼레이드, 사비정도축제, 계백장군 열무식 등을 펼치게 된다.



고마나루축제 7월 12일 개막

고마나루 특설무대에서 다양한 공연 선보



한 여름밤 아름다운 선율이 오는 12일부터 공주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휴양지인 웅진동 고마나루 관광단지에서 울려 퍼진다.

공주시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시원한 놀이한마당을 선사할 제13회 공주시 고마나루 축제를 오는 7월 12일 개막해 오는 8월 3일까지 매주 토, 일요일 오후 8시 웅진동 고마나루 특설무대에서 개최키로 했다.

금강변에 위치한 웅진동에서 개최될 고마나루 축제는 국악공연을 비롯 교향악연주, 놀이패 풍장시연, 댄스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돼 있다.

개막일인 12일에는 개막식에 이어 사물놀이, 발리댄스 공연, 민요, 중국기에 ‘변검’ 등이, 13일에는 라틴댄스 경연대회, 재즈댄스·에어로빅 등 시장기타기 생활체조 경연대회가 열린다. 그 밖에 ‘어울마당’, ‘비보이초청공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26일에는 충남 교향악단의 초청공연에 초대 가수 백지영, 조관우 등이 출연해 고마나루 축제를 한층 더 빛낼 예정이다.



사단법인 이초려기념사업회 부설

공주전통문화교육원 제2차 한문경전강좌 안내

● 대학생(성인)반

기 간 : 2008.07.13. ~ 08.9.(4주)

장 소 : 공주시 상왕동 중동골, 공주전통문화교육원 및 용문서원

과 목 : 맹자(서당식 전통교육, 주 풀이와 성독 병행,上課 離婁 上까지 강독)

정 원 : 30명(선착순 선발, 남15명 · 여15명)

시 간 : 오전 09:00 ~ 12:00 (맹자 강의, 토요일 포함)

오후 - 성독, 특강, 자율학습

수강료 : 없음(단, 숙식비는 수강생 부담)

전원 기숙 생활, 숙식비: 7만원 × 4주 = 28만원 (*통학할 경우 점심제공, 3만원 × 4주 = 12만원)
농협 450-01-011711 (예금주 백원철: 이초려기념사업회장), 7월 10일까지 온라인 입금

◆ 강의 일정 및 담당 교수진

제1주 07.14. ~ 07.19. (송석준 교수: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제2주 07.21. ~ 07.26. (이충구 박사: 한학자 · 국사편찬위원회 고전번역위원)

제3주 07.28. ~ 08.02. (백원철 교수: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이초려기념사업회장 겸 교육원장)

제4주 08.04. ~ 08.09. (이상익 교수: 영산대학교 교양학부)

◆ 특강 담당 교수진

1. 이종락 선생 (한학자) 2. 이성우 선생 (한학자) 3. 이해준 교수 (공주대 사학과)

4. 박소동 교수 (국립고전번역원) 5. 유익렬 교장 (전 공주고)

6. 이달우 교수 (공주대 교육과)

● 청소년반(초 · 중 · 고생)

기 간 : 2008년 7월 ~ 8월(하계방학 기간 중)

과 목 : - 한문 기초(천자문, 사자소학, 추구, 몽학동감, 동몽선습, 명심보감 등)

- 서예, 전통예절(특강)

정 원 : 10명(선착순 선발)

시 간 : - 오전 - 한문 기초학습(훈장이 개인별 지도)

- 오후 - 서예

준비물 : 붓과 먹(서예 수강 희망자)

수강료 : 없음(단 숙식비는 수강생 부담, 1주 7만원 기준, 통학할 경우 중식제공 1주 3만원 기준)

담당 훈장 : 이정우 선생 (초려 이유태선생 종손, 공주향교 유도회장)

이동우 선생 (공주 청유서당 원장, 서예가)

※ 안 내

① 대학생반은 7월 13일(일) 16:00시까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앞에 집결 후 차량 이동.

② 공주전통문화교육원(공주시 상왕동 중동골)에 도착하여 숙소배정 후 개강식(17:00)

※ 연 락 처(수강신청 접수처)

① 공주전통문화교육원 사무실 : 충남 공주시 상왕동 340번지

☎ 041-881-5508, E-mail : 71004388@hanmail.net)

②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한문교육과 사무실

☎ 041-850-8180



뮤지컬배우 최정원 초청강연

국립공주박물관, 7월 5일



국립공주박물관(관장 박방룡)은 7월5일 오후 7시 뮤지컬 배우 최정원을 초청 '뮤지컬, 나를 사랑하는 법'을 주제로 토요문화강연을 개최했다.

최정원은 1989년 데뷔작 '아가씨와 건달들'을 시작으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1994), 그리스(1995), 브로드웨이 42번가(1996), 렌트(2000), 카바레(2002), 토요일밤의 열기(2003), 지킬 앤 하이드(2004), 맘마미아(2007), 2008년 현재는 '소리도둑' 등에 출연,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리고 1995년 한국뮤지컬대상 신인상,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조연상(1996), 한국뮤지컬대상 여우주연상(2001), 한국뮤지컬대상 인기스타상(2002)을 수상했다.

한편 국립공주박물관은 안숙선 명창, 신달자 시인의 토요문화강연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이후에도 영화감독 임권택(8. 30), 방송작가 노희경(9. 6)을 초청 2008년도 '명사와 함께하는 토요문화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판 춘향 'Youth 2.8 청춘' 중국공연

공주영상대 이벤트연출과 5번째 공연

춘향전을 재해석한 'Youth 2.8 靑春'이 공주영상대학(학장 김수량)이 주최하고 이벤트연출과(교수 최유진)가 주관이 되어 중국공연에 나섰다.

힙합과 한국의 멋이 결합된 새로운 뮤지컬 'Youth 2.8 靑春'은 2005년 중국을 첫 방문한 이후 올해까지 총 4번째 방문으로 이번 공연에서는 그동안 보아왔던 '2.8청춘'보다 더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무대를 꾸몄다.

'Youth 2.8 청춘' 팀은 고전 춘향전을 새롭게 각색, 춤과 음악이 공존한 새로운 장르인 'Alternateve Dance Musical'을 통해 젊은 층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또한, 전국 대학 뮤지컬 페스티벌, 익산서동축제 S-POP Festival 등에서 최우수상, 대상 등을 수상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아 왔다.

이번 중국공연은 6월 2일 ~ 5일까지 산둥·위해를 방문 산둥영재직업기술학교와 위해공업기술학교에서 총 5회의 공연을 펼쳤다.

한편, 이번 공연을 위해 이벤트연출과 1기 졸업생 전광진(<http://www.pinkygirl.co.kr/>, 핑키걸 이사)은 학과에 200만원을 기부 선·후배간의 돈독한 정을 보여주어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공주문화원 주최 예술하는 공주사람들 '예인촌' 마흔세 번째 정기공연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과 함께하는 제1회 토요일국악 상설무대

「만 남」

공주시, 공주문화원이 주최하고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예인촌이 주관하며 충청남도, 주)한국 케이블 TV 충청방송이 후원하는 예술하는 공주 사람들 '예인촌' 마흔세 번째 정기공연이 5월 31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 잔디마당에서 열렸다.

공주시충남연정국악원이 '토요일국악 상설무대'를 마련 「만남」이라는 주제로 역사와 숨결이 살아있는 선화당을 야외공연장으로 활용, 녹음이 어우러진 자연과 함께 국악의 색다른 맛과 멋을 선사했다.

이 공연에는 '화관무'에 박혜정씨외 6인이 출연, 한삼으로 그려내는 유동의 맛을 그린 춤사위를 선보였다. 또, 고정민씨가 판소리체의 산조인 '김병호류 가야금 산조'를 연주, 깊은 농현을 구사하며 다양한 조와 선율로 인간의 감정을 아름답게 그려냈다. 이와 함께, '교방굿거리'에 최선 교수가 차분하고 섬세한 애절한 무태로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 관객들에게 무아지경으로 흠뻑 빠져들게 만들었다. 이밖에, 판소리 심청가 중 '주과포혜'에 이슬 씨, 국악관현악 공연, 사물놀이가 연주돼 한밤에 국악의 향연이 화려하게 펼쳐져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공주문화원 주최 예술하는 공주사람들 '예인촌' 주관 마흔네 번째 정기공연
김혜식의 사진과 함께하는 공주소리꾼 이걸재의

‘아라리謠(요)’ 성황

녹음방초 우거진 6월을 맞이하여 공주문화원이 주최하고 예술하는 공주사람들 ‘예인촌’ 마흔네 번째 정기공연이 6월 19일 오후 7시 30분 공주문화원 공연장에서 펼쳐졌다.

이번 공연은 10년째 소리를 하고 있는 이걸재 씨의 네 번째 개인 소리 마당으로 ‘아라리謠(요)’라는 주제로 우리 가락의 맛과 멋을 선사했다.

이번 공연은 기획 공연으로 이걸재씨가 노래를 하는 동안 공주의 여류 사진작가 김혜식씨의 사진이 영상으로 연출됐다.

이번 공연 첫째마당에서는 따뜻한 고향을 버리고 추운 사할린 벌판에 사는 동포들이 일제 강점기에 부르던 ‘사할린 본조 아리랑’, 황량한 만주벌판에 살면서 부르던 ‘아픔의 아리랑’ 등 나라 잃은 설움을 다룬 마당이 펼쳐졌다.

둘째마당에서는 해방 후 중국 길림성 동포들이 부른 ‘기쁨 아리랑’, 독립군들이 군사 훈련을 받을 때 일본군 사관학교에서 부르던 군가에 가사를 바꾸어 부를 수 없다하여 새롭게 부른 ‘독립군 아리랑’ 등 희망을 다룬 마당이 이어졌다.

그리고 공주인들이 흥에 겨워 부르던 아리랑을 해학적으로 연출한 ‘술 취한 아리랑’ 등 웃음을 다룬 셋째마당이 펼쳐졌다.

그리로 독특하고 흥겨운 후렴과 난봉 아리랑재의 재미있는 노랫말이 빛나는 ‘밀양 본조 아리랑’ 등 흥을 다룬 넷째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우정출연으로는 성기열 씨 외 2명이 나와 현제명의 고향생각 외 1곡을 들려줬다.

곡도 변하고 노래도 변했음에도 들으면 친숙한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

흥과 웃음으로 부르던 아리랑 공연에 모두들 어우러져 덩실덩실 함께 춤을 추는 한마당 공연이 펼쳐졌다.



2008 실버문화학교 전통문화예술단 논두렁 발두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공식에 출연 지역문화 우수성 알려

2008 실버문화학교 전통문화예술단 공연단체 논두렁 발두렁(회장 전용주)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공식'에 출연하여 지역문화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출발을 알리게 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공식을 6월 10일 구 전남도청 일원인 아시아 문화전당 건립현장에서 개최했다.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공식에 공주시 의당면에서 활동중인 공연단체인 '논두렁 발두렁'이 초청되어 단원 70여명이 출연, 전통적인 집터다지기에서 착안한 축하공연인 '아시아 문화 큰 터 다지기' 프로그램으로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부지면적 128,621㎡, 연면적 178,199㎡, 사업비 7,984억원을 투입,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지식문화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등이 건립될 계획이며, 2012년 5월 개관 예정이다.

공주문화원, 한국문인협회 공주시부 공동주최

제 13회 효(孝)사상 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 백일장 성황

공주문화원(원장 정재욱)과 한국문인협회 공주시부(지부장 신현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 13회 효 사상 선양 청소년 백일장이 지난 6월 13일 효의 본고장 공주의 효 사상을 널리 함양·고취시키고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소질계발, 독서습관을 생활화하는데 기여코자 공주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주 공산성 쌍수정 광장에서 초등부 305명(운문 155명, 산문 150명), 중등부 182명(운문 99명, 산문 83명), 고등부 121명(운문 46명, 산문 75명)등 600여명의 공주관내 학생들이 모여 백일장 글짓기에 엄마/선물, 아버지/컴퓨터, 할머니/핸드폰 이란 주제로 실시해 성황리에 끝마쳤다.

그 후 심사를 거쳐 공주문화원 강당에서 6월 26일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시상된 작품은 공주문화원, 각 학교, 기관 및 공주종합문예지 "공주소식"에 기재하여 청소년의 꿈을 실현하는 새로운 기획의 계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원한다. (입상자 명단 참고)



제13회 “효”사상선양 공주시 초·중·고 학생글짓기백일장 입상자 명단

Ⅰ 산문

초등부 장원 임소연 | 구산초등학교 6학년
차상 안다혜 유슬기 서민철 오현경 최선미 유옥현 이해영
차하 권혜림 이하림 정상숙 이수정 장재희 김용재 이민정 이소령 노재욱 최가영
유장주 임혜진
참방 배세원 정여홍 이도한 황혜선 곽하은 김우신 이수현 김이슬 이재은 신예빈
오인석 이정선 이아현 김지현 조덕연 오윤경 강선화 임유진
지도교사상 조인실 | 공주신월초등학교

중등부 장원 정소라 | 공주여자중학교 2학년
차상 오승리 신한솔 김슬기 오소라 유현승 이선미
차하 심솔이 강혜지 김정수 전다인 김지현 김진춘 유가영 김희정 윤단비 염슬아
차하 왕예림 연진영 김소현 주지수 이정은 노유림 이단비 김용주 최강호 조숙희
지도교사상 윤영주 | 공주여자중학교

고등부 장원 오솔지 | 공주금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차상 김민석 김재인 전미나 홍경화 성지은
차하 정지선 이수인 김다순비 최진주 김승숙 장진보 정진주 신효정
참방 신현식 오상훈 강병주 최유리 이윤애 김철기 이현이
지도교사상 노경선 | 공주고등학교

Ⅱ 운문

초등부 장원 김혜진 | 공주봉황초등학교 5학년
차상 최선진 이희창 황지수 안지민 최소연 구채영 이다현
차하 이근영 서주희 이서연 윤소정 윤태식 나효경 최민지 윤효정 서채린 김가영
한용희 양다현
참방 임지영 류하영 이지현 임재이 최정은 김병수 이찬진 김예진 이수림 황혜진
김민아 이지영 왕예진 박대수 김영은 김혜지 조요한

중등부 장원 김길하 | 경천중학교 3학년
차상 정아영 이연주 조신영 임유리 주현지 윤여주
차하 이재윤 김현정 한신희 원정미 김아영 정혜윤 양선호 윤남희 김혜연 박현서
참방 김선희 한단하 엄지은 김소영 김수정 강슬비 정덕환 임윤성 유정하 김시연

고등부 장원 최성림 | 공주고등학교 1학년
차상 엄진선 백초롱 김영지 정혜성 엄태준
차하 김슬기 황세영 전은선 임유연 김윤희 이진형 조원희 윤하경
참방 송지원 김가영 박지광 박상구

할머니

오 솔 지 | 공주 금성여자고등학교 3학년

할머니께서는 언젠가 오빠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대학교 등록금은 내주지 못해도 용수, 솔지 옷 한 벌 사주고 싶구나.”

그러나 할머니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 아니, 약속을 지키실 수 없게 되었다. 지금 이 세상에는 할머니가 안 계시기 때문이다. 할머니께서는 작년 이맘때쯤 돌아가셨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할머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나는 유독 할머니를 좋아하고 따랐다. 할머니께서도 몇 안되는 손자 손녀들을 아끼고 사랑해주셨다. 할머니께서는 4살 때 병을 앓으셨는데 바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소아마비로 평생을 사셨다.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셔서 글을 읽지 못하셨다.

철이 없었던 어린 시절에는 이런 할머니가 창피했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식당 주방에서 엄마가 일하셨다. 마음대로 빠질 수 없는 엄마를 대신해서 할머니께서 운동회에 오셨다. 절뚝거리고 손을 자유롭게 못하는 할머니가 창피해서 얼굴을 붉히고 살금살금 피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철없던 내 행동으로 인해 혹시나 할머니께서 상처를 받으셨을까봐 죄송하다.

중학교 3학년때, 조금이나마 철이 들었던 나는 할머니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3학년 때 엄마에게 ‘똥’이 왔다. 엄마는 한쪽에 마비증세가 왔고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했다. 우리들은 엄마 없는 집에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었다. 엄마의 빈자리가 그리웠던 나는, 매일 저녁에 엄마와 전화를 하면 말없이 전화기만 붙잡고 펄펄 울었다.

힘들었던 나에게 기댈 곳이 필요했다. 그 때 할머니께서 집에 오셔서 집안일을 도와주셨다. 하루 하루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엄마가 퇴원한 이후에도 할머니께서는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도와주셨다. 할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했고 나도 할머니를 많이 챙겨드리기로 다짐했다.

한번은 할머니께서 나에게 글씨를 가르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귀찮은 마음도 없지 않았지만 조금씩 가르쳐 드렸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날 때쯤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다시 쓰러지면 생



명에 지장을 준다고 말했었다. 겁에 질려서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유감스럽지만 환자분께서는 식물인간 최악의 상황으로는 사망을…”

의사 선생님께서는 끝내 말을 하지 못하셨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빠를 대신해서 할머니께서 한걸음에 달려 오셨다. 대전으로 이송되었다. 곧바로 수술이 시작되었고 자정 무렵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할머니와 뜯눈으로 밤을 보냈다. 내가 병원에 남아서 엄마를 지키기로 했다. 중환자 보호자 대기실에서 생활했다.

할머니께서도 자주 오셨다. 힘들었던 나로서는 할머니에게 기댈 수 있어서 힘이 났다. 엄마는 9일만에 기적처럼 눈을 떴고 회복속도가 빨라서 두 달을 채우지 않고 퇴원을 하셨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작년 이맘때쯤 가족과 외출하고 돌아오니 집 전화에 부재중 전화가 수십건 기록되었다. 병원이었다. 할머니가 뇌수술을 받았다고 했다. 믿을 수 없었다. 일주일전에 갔었는데…。 급하게 병원으로 출발했다. 할머니께서는 예전에 엄마처럼 많은 기계를 달고 누워계셨다. 좀처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할머니께서는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지 못하시고 세상을 떠나셨다.

떠나시기 전날 가족들이 할머니께 이야기를 했는데 할머니 눈에는 눈물이 맺혀있었다. 마치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것처럼. 할머니께서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시고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생전에 좋은 집에 살지도 못하시고, 항상 할머니보다 자식들만 먼저 챙기고 그런 분인데,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렇게 할머니를 가슴에 묻었다.

할머니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아실까? 하늘나라에서는 글도 많이 배우시고 다음 생애에는 몸도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사셨으면 한다. 할머니께 제대로 효도도 못하고 아직 못다한 이야기도 많고 할머니가 보고 싶은데 할머니는 지금 무얼 하실까 궁금하다. 내가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글을 쓰고 있는데 할머니께서 이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한다. 꿈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할머니, 불러도 대답 없는 할머니,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셨으면 한다.

“할머니! 늦게 할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지켜봐주세요. 멋진 손녀딸이 될게요. 엄마의 건강도 챙기면서 주신 은혜에 보답할게요. 사랑해요.”



알림

「공주문화」지는 격월간으로 3,000부 발간하여 국내경향각지에 사시는 우리공주출신인사 여러분들과 각급기관 사회단체 및 공주시민들께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지를 받아보고 계시는 분이 주소가 변경될 시 변경된 주소를 본 문화원으로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변경으로 반송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로 인하여 주소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 양식에 의거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변에 고향이 공주이거나 연고가 있으신 분도 계시면 함께 알려주시면 그분께도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화지는 공주가 고향이신 출향인사나 또는 공주와 인연이 있으신 분에게 무료로 배부해 드리고 있어오니 주소변경이나 이웃에 알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음

성 명	연령	자택주소	직장 및 직위	전화번호	우편번호	출신지역
-----	----	------	---------	------	------	------

- 보낼곳 - 314-100 충남 공주시 반죽동 184-2

공 주 문 화 원

전화 041)852-9005, 852-7600

E-mail:8529005@hanmail.net | 홈페이지:www.culturegj.or.kr | 네이버검색:공주문화원

발행인_정재욱 | 편집위원_이극래, 나태주, 구중희, 신용희, 김춘원 | 발행처_공주문화원

공주시 반죽동 184-2 전화 041 · 852 · 9005, 852 · 7600 | 인쇄처_공주신문사(전화 041 · 853 · 8111)